



노원문화재단의 2020년을 돌아보며

안녕하십니까?

《노원아띠》출간을 계기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은 물론이고, 예술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원아띠》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단과 예술인들, 그리고 구민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읽힙니다. 노원구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주신 예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원구 곳곳을 누빈 노원아띠기자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받고,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노원달빛산책>에서 ‘달’에 소원을 빌며 위로를 받았고,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 발광>에서 다음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노원아띠》를 읽으시면서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 글을 읽는 노원구민 모두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노원구청장 오승록

코로나19 위기에도 예술을 이어온 이들에게 감사하며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을 축하하는 듯한 첫눈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다들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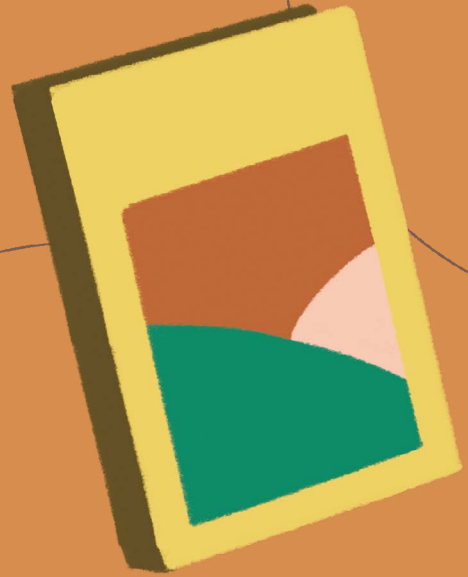
2020년은 참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계까지 덜컥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고, 노원문화재단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노원아띠》를 읽으면서 재단과 예술가, 그리고 구민들 모두의 힘으로 올해 노원의 문화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원달빛산책>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형 축제’였고, <버스킹 콘서트>는 구민들의 생활 곳곳을 찾아간 소규모 축제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 덕분에 문화생활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노원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채워주신 노원문화재단과 예술가, 그리고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생한 기사를 작성해주신 노원아띠 기자단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노원아띠》를 읽으시며 문화예술로 채워졌던 2020년의 노원을 돌아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원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술이 주는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노원구의회 의장 최윤남



코로나19로 문화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지금,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 있던 일상을 떠올린다. 노원 문화생태계의 문을 두드리며 지역민의 생활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이들이 있다. 서로 출입구를 경계하는 중에도 그들은 부지런히 그 다음을 준비한다. 멀찍이 앉아도, 천천히 와도 좋다.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공연장의 문이 조심스레 열린다.

글 하나

“노원구 문화예술계를 지지하고 키우는 물조리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 6월에 문을 열었다. 지난 1년간 노원 문화의 발전을 위해 예술인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재단의 중심에는 김승국 이사장이 있다.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을 만나 재단의 미래와 문화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글·사진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노원문화재단의 웹진을 모은 매거진 《노원아띠》가 드디어 창간되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우리만의 소식지로 구민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창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노원아띠》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친한 친구가 말하듯이 구민들에게 노원구의 문화 소식과 가볼 만한 곳 등을 소개하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죠. 노원아띠는 구민들에게 노원문화재단의 활동은 물론이고, 노원구의 문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예요. 구민으로 구성된 노원아띠 기자단이 직접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감상을 적어줄 텐데, 이웃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원문화재단이 창립 1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구민에게 “노원문화재단이 노원구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공연 하나하나의 품격이 높아 구민의 자존감을 높인 것 같아요. 또, 〈노원탈축제〉가 서울시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온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자리 잡아 참 기뻐요.

이사장님은 문화계에서 오랜 기간 일해오셨죠.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백범 김구는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셨죠. 저는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늘 이 말을 되새겨요. 문화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 외에도,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 및 창의력 증진에 이바지해요. 또한 사회통합 기능은 물론, ‘치유의 기능’ 역시 갖고 있고요. 저는 문화가 가진 치유의 기능을 믿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문화예술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문화예술은 계속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재단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2020년은 노원문화재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해예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취소되어 예술인들은 큰 피해를 보았고, 구민들은 예술을 즐기지 못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노원문화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내라 노원, No.1 자동차극장’을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노원문화배달’, 구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응원 드로잉 챌린지: 힘내라! 액츄얼리’, 관내 예술인 지원을 위한 ‘노원 예술인 지원 상담소: 노원하랑’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어요.



©2019 노원문화재단

창립부터 지금까지, 노원문화재단의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노원문화재단은 지난 1년간 구민과 지역 예술인의 문화 활동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지지하는 ‘물조리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노원문화재단의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노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컨트롤 타워로서 ‘Think Tank’이자 ‘Do Tank’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문화복지 실현과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려고요.

마지막으로 《노원아띠》 독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술인과 재단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듣게 되었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활예술 활동과 예술교육 활동도 준비 중이고요. 문화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에 활기가 생기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승국

인천 출생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2017~2019)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2016. 4.~2017. 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2013. 11.~2016. 3.)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위원장(2013. 6.~201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 서울예술단 이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2011. 3.~현재)

저서
 시집 《쿠시나가르의 밤》(2011)
 《젯빛거리에 민들레 피다》(1999)
 수필집 《인생이라는 축제》(2019)
 《김승국의 국악, 아는 만큼 즐겁다》(2018)
 《김승국의 전통문화로 행복하기》(2016) 등

연주하듯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듯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송영민

연주자는 무대를, 관객은 객석을 그리워하며 한 해를 앓았다. 악기의 울림과 무대 위 농담. 단절된 동안 우리는 당연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며 때를 기다린다. 공연을 이야기하는 송영민의 눈이 햇살처럼 빛났다.

글 하나 사진 Hae Ran



오랜만에 공연장에서 연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송영민의 뮤직 브런치〉는 이름대로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한 〈11시 콘서트〉를 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청중은 주로 주부분들이예요. 부지런히 오전을 보낸 후에 좋은 음악을 듣고, 끝난 후에는 친구와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으니 좋죠.

〈송영민의 뮤직 브런치〉는 회차마다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직접 기획했나요?

네. 총 다섯 번 공연하는데 그중 세 번은 정통 클래식 공연이에요. 남은 회차 중 하나는 국악과 클래식, 다른 하나는 영화 음악과 클래식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으로 기획했어요.

국악과 영화 음악이라니 신선하네요. 어떤 계기로 컬래버레이션을 결심한 거예요?

알고 지내는 뮤지컬 감독님이 TV 프로그램 〈판 스틸러〉파이널 콘서트에서 국악과 클래식 협주 공연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협연해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찾아보니 국악에 서양 음악을 더한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그중 유튜브에서 신동재 선생님을 봤어요. 쇼팽 에튀드 ‘혁명’을 연주하며 ‘적벽가’를 부르고, 파헬벨의 ‘캐논’을 연주하며 ‘사랑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해서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흔쾌히 같이하자고 해주셔서 기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송영민입니다. 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예술감독으로 콘서트를 만들어 올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가끔 방송에 출연하거나 해설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쳐요.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네요(웃음).

주로 연주를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된 후로 공연이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연이 많이 줄었죠. 그동안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남은 시간에는 조금 쉬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인연이네요. 그럼 영화 음악은요?

영화 음악은 친분 있는 연주자들과 함께해요. 색소폰 콰르텟 ‘에스윛’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때 공연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에스윛은 영화 음악을 편곡해서 연주하는데, 너무 멋져서 더 많은 관객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회를 만들었어요.

어떤 협연이 될지 기대돼요. 그리고 보니, 그동안 설명을 곁들인 공연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20년 동안 음악을 공부했어도,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온갖 서적을 뒤지며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곡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관객이 음악을 듣기만 하고 이해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곡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과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들을 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관객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연주곡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곡마다 다르지만, 캐릭터피스Character piece(특정 분위기나 사상을 담은 작품)는 당시 작곡가의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위주로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제가 연습하며 생각한 것을 짧은 시범 연주와 함께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재주에 따라 공연 분위기도 무척 달라지겠어요.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나요?

무엇보다 연주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연주를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커서 무대에서 힘들었어요. 여전히 매일 7시간 이상 연습하고 있지만, 프로 연주자가 된 지금은 예전의 부담은 조금 내려놓았죠. 그리고 나니 또 다른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좀더 즐겁고 편안하게 연주해서 청중에게 행복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연주자가 되고 싶고요.

이번 공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요?

우리 모두 음악 없이 살아봤잖아요. 저는 참 힘들었어요. 많은 분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클래식은 어려운 음악이 맞아요. 한 곡을 10분 동안 지그시 듣는 일이 드문 시대죠. 그러니까 최고의 연주자들과 연주하며 곡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전해 드리려고 해요.

공연이 끝난 후에 ‘클래식도 참 좋다. 공연장에 가서 들을 만한 음악이구나.’ 그런 정도만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연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 한마디 전해주세요.

무대를 빛내는 연주자에게

늘 연주하는 삶을 살던 많은 분이 지금의 시기를 견디고 있어요. 이번을 계기로 무대라는 것, 그리고 청중과의 교감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도 했죠. 그러니까 더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합시다!

연주를 듣기 위해 객석을 찾아준 이들에게

공연은 회차당 70분 정도인데, 그 시간만이라도 힐링하길 바라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엔드르핀이 돌잖아요. 〈송영민의 뮤직 브런치〉가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마음 충전, 문화예술 힐링 3종 세트

노원문화배달 서비스

2020년, 예기치 않은 전염병은 우리 생활영역을 위축시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정확히 반대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최대한 흩어지는 것이다.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얼굴을 가리고, 서로 서로 조심해야 한다. 처음 겪는 상황에서 힘들게 각개전투 중인 노원 구민을 위해 재단이 특별한 보급품을 마련했다.

클 김윤지 노원아띠 기지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로하고 무대가 축소된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루 한 편 문학, 미술, 공연 콘텐츠를 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렇게 시작한 ‘노원문화배달’은 작품마다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문화적 소양을 넓힘과 동시에 긴장된 생활에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선사한다. 아직 감염 위험이 가시지 않은 지금, 화면 속 예술을 통해서 일상의 활기를 충전해 보자.

일상을 재료로 맛을 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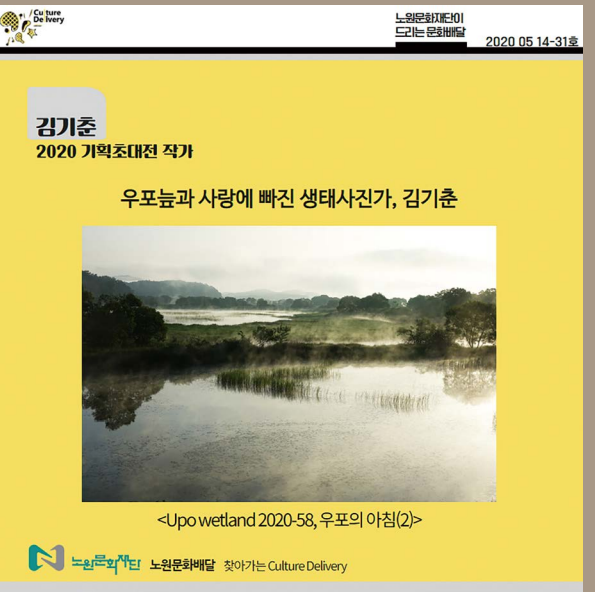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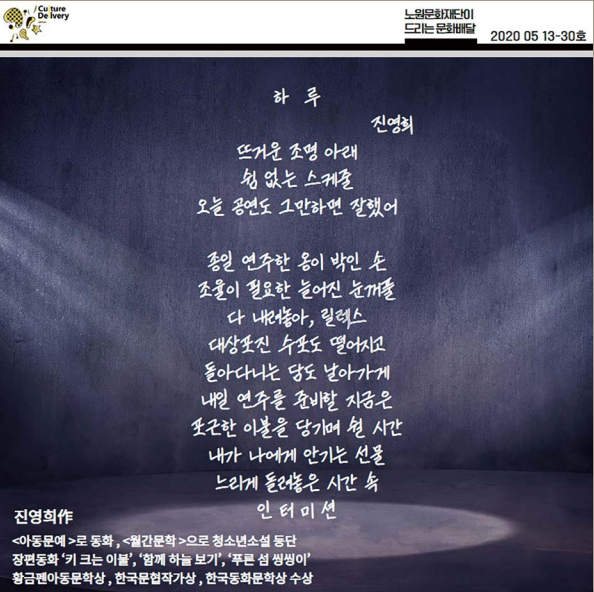
일상이 맨밥 먹듯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시를 통해 감수성을 보충할 때다. 시인은 삶에서 특별함을 찾아낸다. 일과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일과 같고, 잠자리에 드는 동안은 인터미션이라는 진영희 시인의 ‘하루’, 인생은 안락한 집을 떠나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김승국 시인의 ‘나그네’ 등 노원문화배달에서 소개하는 시를 읽어보았다. 시어 하나하나와 맥락을 꼭꼭 씹어 음미하면서.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아도 한 번 두 번 되새김질하면 내밀한 속뜻이 배어 나와 진한 여운을 남길 것이다.

여행 금단 증상을 달래줄

여행이 제한된 건 업계의 비극만은 아니다. 계절마다 국내외 명소를 찾아다니던 이들은 지금쯤 시름시름 앓아누웠을지도 모른다. 구민들의 굶주린 눈을 위한 환상의 요깃거리가 있다.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의 그림으로 19세기 파리 여행을 떠나보자. 카미유의 붓 터치를 따라 그 시절을 상상하면 잠시나마 유럽에 있는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국내 작가의 작품도 있다. 김기춘 작가는 8년간 우포늪의 사계절, 시시각각을 담았다. 그의 사진으로 거대한 자연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다.

소리뿐 아니라 표정까지 싱싱한

노원문화배달 콘텐츠의 백미는 공연이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팬플루트, 가야금, 아쟁 등 동서양 악기 연주와 성악 무대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공연장에서는 현장감은 느껴지지만, 무대와 객석이 떨어져 있는 만큼 연주자의 표정과 손가락처럼 정밀히 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근접 촬영한 영상으로는 맨 앞자리에 앉을 때보다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 13살 피아니스트 유은서의 손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한지, 가야금의 청아한 음색과 연주자 조영경의 눈빛이 얼마나 단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 크로스 오버 클래식 싱어즈 강창련과 에스페로의 성량만큼이나 풍부한 표정 연기 등 공연장 뒷자리에서는 결코 보기 힘든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노원문화배달 채널

H. nowonarts.kr

F. facebook.com/nowonart

I. instagram.com/nowonartscenter

Y. youtube.com에서 '노원문화재단' 검색

덕분에 힘이 납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드로잉 챌린지 ‘힘내라! 액츄얼리’

전 세계에 SNS를 통한 응원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노원구민들도 노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챌린지 ‘힘내라! 액츄얼리’에 동참해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글 이력진 노원아띠 기자단



©silkiremy

공공장소에 남몰래 작품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한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의 신작이 영국의 한 병원에서 공개됐다. 사우샘프턴 종합병원 외벽에 걸린 그의 작품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에는 간호사 인형을 높이 든 어린아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바닥에 놓인 장난감 바구니엔 우리에게 익숙한 영웅인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밤낮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새로운 영웅’으로 표현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란의 만화가 알리레자 팍델Alireza Pakdel은 그의 SNS 채널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왔다. 그의 따뜻한 그림 중 ‘함께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자Together against Corona virus’를 보면, 재봉틀로 손수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거실을 가득 메운 마스크를 발견한 것일까? 창문 너머 의료진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듯 보인다.

거의 모든 미술관이 문을 닫은 요즘, 전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가 SNS를 통해 ‘코로나19 작업’을 공개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관객은 집에서 모바일과 컴퓨터를 통해 그림을 감상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아무리 먼 이국에서 전해온 그림이라도 우리는 어떤 그림인지, 어떤 마음일지 단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새삼 국적과 언어의 벽이 없는 ‘이미지의 힘’을 느낀다.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지난 4월 나만의 그림으로 전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챌린지 ‘힘내라! 액츄얼리’를 진행했다. 이는 코로나 극복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손 그림, 일러스트, 그림일기, 사진 등 자유 형식의 창작 이미지를 SNS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응모할 수 있었다. 나는 접수 기간에 수시로 #힘내라액츄얼리, #응원드로잉챌린지, #노원문화재단 해시태그를 눌러보며 어떤 그림이 올라왔는지 구경했다. 노원문화재단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SNS 활용도가 높은 창작자의 작품으로 예상되는 그림들이 올라와 있었다. 깜찍한 아이들 그림들도 눈에 띄었다. 참가작이 홈페이지에 공개됐을 때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스크롤을 넘기며 천천히 감상했다.

40점을 웃도는 작품들은 다양한 형식과 개성 있는 그림체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꾀꾀 눌러쓴 그림일기부터, 수려한 캘리그래피 작품까지 참여자 연령대도 비교적 다양했다. 작품 주제로는, 역시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한 그림일기는 “의사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로 시작되어 어쩐지 ‘웁픈(웃기고 슬픈)’ 기분이 들게 했다. 커다란 마스크 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 작품에서는 학교에 가지 못해 누구보다 답답한 봄을 맞이했을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된 청년의 웹툰 작품도 있었다. 힘들지만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하는 담담한 모습에 잔잔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하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집콕’해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자는 뚜렷한 메시지가 돋보였다. 특히 방호복 고글에 눌러 상처 입은 의료진의 그림을 보았을 땐, 거리 두기 실천에 해이해지려던 마음을 다시 꼭 다잡게 됐다.

주제를 통틀어 그림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다 같이’, ‘함께’, ‘모두’ 등의 부사였다. 그 말 안에 전례 없던 재난에 맞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멋진 솜씨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눠준 드로잉 참여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응원의 글과 그림을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마치 같은 동네에 사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그림 카드를 받는 기분이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마음만은 더 가깝게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한 장 한 장 희망을 그리는 마음이 모여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바라본다.



©sumy8991



SPACE

숲길로 조성된 철길을 걸어보자

경춘선숲길 화랑대역사관

경춘선숲길은 경의선숲길과 함께 폐선된 철길을 숲길로 복원한 서울의 대표적 명소다. 노원구 월계동과 공릉동 사이 중랑천 위에 있는 철길인 경춘철교를 시작으로 태강릉과 육군사관학교를 지나 공릉동과 구리시 경계로 이어지는 약 6km 구간에 조성되어 있다.

글·사진 장영범 노원아띠 기자단



경춘철교부터 방문자센터까지

경춘선숲길은 구간마다 특징 있게 조성되었다. 경춘철교를 건너 방문자센터까지의 구간은 주민들이 만나는 공간이다. 넓은 공터와 함께 곳곳에 벤치나 퍼결러를 마련해 두어 가족이 나들이하기에도 좋다. 또 철길 주변으로 플리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행사가 열리니, 일정에 맞추어 참여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짙은 나무숲으로 걷다 보면 깊은 산속의 외딴 길을 걷는 느낌이 든다.

화랑대역사관(구 화랑대역) 주변

육군사관학교나 6호선 화랑대역은 경춘선숲길의 출발 지점이다. 육군사관학교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면 구리시 방향과 구 화랑대역 방향으로 철길이 나누어져 있다. 지금은 화랑대역사관으로 변신한 구 화랑대역으로 가려면 방문자센터 방향으로, 구리시 방향으로 가려면 담터마을로 향하면 된다.

구 화랑대역 주변에서는 옛 추억을 회상하며 산책할 수 있다. 서울에서 춘천 방향으로 출발한 기차가 잠시 머무르던 이 역은 서울에 남아 있는 보기 드문 간이역이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영업을 시작하여 경춘선 복선화 사업으로 2010년에 성북~화랑대 구간이 폐지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고, 경춘선숲길이 복원되면서 2018년 화랑대역사관으로 재탄생하였다. 화랑대역사관 안에는 옛 승무원들의 이름과 예전에 쓰이던 차표, 안내표지판 등을 전시하여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역 주변 철길에는 지금은 달리지 않는 기차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기차를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승차하여 차창으로 밀려드는 바람을 느끼며 철길을 달리는 상상을 하게 된다. 그래서인가 플랫폼에서 철길로 내려설 때마다 기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철길 옆에는 견고 싶은 숲길이 꾸며져 있다. 저녁에는 노원불빛정원에서 호화로운 불빛 아트를 구경할 수 있다. 통기타 반주에 노래를 부르며 삶은 달걀과 꿀을 간식 삼아 춘천으로 향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그리운 이라면 이곳에서 향수를 느끼며 산책해 보는 건 어떨까. 어느새 그때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화랑대역사관

A.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9-51

O. 화~일 10:00~18:00, 월 휴관(설·추석 연휴, 공휴일 다음 날 휴관)



SPACE

대학교에 등록문화재가 있다고?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나는
등록문화재 근대 건축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공릉동 편이 방영된 후 많은 사람이 공릉동을 찾고 있다. ‘공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춘선숲길을 따라 데이트를 즐기다 맛집을 찾곤 하는데, 이 동네에는 공원과 맛집만큼이나 매력적인 볼거리가 또 있다. 바로 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숨겨진 등록문화재다.

글·사진 조득신 노원아띠 기자단

역사를 품은 학교 건물

과학기술대학교 안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이 세 개 있다. 다산관, 청학관, 대륙관이다. 과학기술대학교는 과거에 경성 제국대학교였다. 1942년, 다산관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건물이 만들어졌다. 이 건물들은 광복 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다. 다산관과 청학관은 2002년 5월 31일, 대륙관은 2009년 2월 28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캠퍼스 정문 안쪽 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다산관이 보인다. 옆으로 긴 모습이 인상적인 이곳은 등록문화재 12호로, 정식 명칭은 ‘공릉동 구 서울 공과대학’이다. 다산관 옆 청학관 역시 비슷한 특징을 띄는데 두 건축물 모두 우아한 조형미보다는 실용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대학의 권위가 느껴지는 현관과 중정을 에워싼 ‘ㄷ’자형 구조도 인상적이다.

다산관의 건물 외관은 옛 건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관리가 잘 되어 있다. 특히 8층 높이의 탑이 돋보인다. 원래는 시계탑이었는데 2008년에 시계를 없애면서 시계탑에서 탑의 형태로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청학관은 시대마다 다른 기관으로 쓰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다산관처럼 경성대학 이공학부 건물로,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관이 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 사령부 건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정보통신대학 소속 전자IT미디어공학과가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옛 모습을 보다

캠퍼스 오른쪽 끝자락에 자리한 대륙관은 등록문화재 369호로,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사’이다. 이 건물은 1942년에 ‘경성광산전문학교’로 지어졌는데, 이는 일본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전쟁 물자 보급과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광복 후에는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건물로 사용되다 현재는 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대륙관은 세 건물 중 옛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찾아가는 의미가 있다. 건물은 전반적으로 1940년대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담고 있다. 전문학교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건물 중앙에 탑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 교육사령부 겸 전남북 계엄본소로 등장하기도 했다.



흙으로 빚고, 손으로 만드는

노원구 도예공방 체험기

흙을 만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어느샌가 뿌듯한 미소를 짓게 된다. 노원구 곳곳에는 이런 도예 작품을 만드는 공방들이 숨어있다. 노원아띠 기자단이 찾아간 도예 공방 세 곳을 소개한다.

도예에 대한 철학

루미에셀 공방

글·사진 정소나 노원아띠 기자단



조용하고 아담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섰다. 공방의 주인장인 김지예 작가의 도움을 받아 나뭇잎 도자기를 빚어보았다. 백자토라 불리는 흙을 한 움큼 떼어다가 나무 방망이처럼 생긴 도구로 평평하게 만들어준 뒤 코일링 기법(흙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쌓아 올리는 기법)을 이용해 접시 형태를 만들어나갔다. 물과 진흙으로 접촉도 해보며, 1시간 반 만에 완성한 세상 하나뿐인 나뭇잎 접시. 유약을 바르고 최종 완성까지는 최대 4주가 걸린다고 한다. 조형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의 이름인 루미에셀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다. ‘루미에셀’은 프랑스어로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로, 도자기를 배우고 교육하며 사람들에게 빛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작가는 어린 시절의 해외 체류 경험이 공방을 운영하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할 때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지 표현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애쓰다고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작업이 시작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원구에 터를 잡은 그녀에게 2년 남짓 공방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자 “성인보다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고 한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수업을 오는데 아이들 고민을 들으면서 요즘 아이들의 직업관,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고. 예술 교육을 통해 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는 작가의 애정과 교육 철학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요즘 공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사태로 공방 운영은 어려워졌지만, 작가로서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조형물로 표현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공방에서는 핸드빌드, 물레 작업, 캐스팅 작업 등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배우는 사람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 일대일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 흙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도자 작업실 루미에셀을 찾아 ‘소만행(소소하게 만들며 느끼는 행복)’을 느껴보면 어떨까.

루미에셀 공방

A.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64 지하 1층

H. blog.naver.com/lumieretsel
[instagram.com/lumietsal](https://www.instagram.com/lumietsal)

T. 02 930 7710

O. 평일 11:00~20:30(주말은 예약만 가능)

* 원데이 클래스: 아동, 성인

* 정규 과정: 아동, 성인(1개월 단위 / 핸드빌딩, 코일링, 판 작업, 물레 수업 가능)

아주 특별한 그릇 이야기

그림도자기 애리AeRi

글·사진 편은심 노원아띠 기자단



공릉동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역이다. 지역 주민과 복합 문화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자기 공방 애리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태릉입구역 사거리에 있다. 공방 주인 김애리 작가는 대학에서 그래픽을 전공해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육아와 함께 어릴 적부터 마음에 담아둔 회화를 다시 시작했다. 도자기 위에 회화를 입히는 그림 도자기 작업으로 8년째 활동 중이다.

이곳에서 나는 장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큰 사각 접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도자기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어서 잘해 낼 수 있을까 긴장했지만, 도자기와 안료(도자기에 쓰는 물감)와의 작용에 빠져 열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체험은 보통 2시간 30분 소요되며,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한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은 것이라, 먹물이 종이에 스미듯 안료를 탄 물감 역시 금방 마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사용하되, 번진 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붓을 들어 가볍게 터치한다. 붓질이 어려워도 충분

히 수정과 보완이 가능해 초보자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도자기가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만 남는다. 유약을 바른 덕분에, 윤기가 돌며 생명력 있는 그림이 된다. 완성된 작품은 주로 일주일 안에 볼 수 있다.

김애리 작가와 같은 개인 예술가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뭉치고 더불어 살면, 이를 통해 또 다른 계기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 역시 그렇다. 지역의 문화예술 공동체가 커질수록 지역민이 예술을 접하고 힐링하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림도자기 애리

A.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라미어스오피스 101동 205A

H. blog.naver.com/kal6370

[instagram.com/by.aeri](https://www.instagram.com/by.aeri)

T. 02 975 8583

O. 월~금 10:00~18:00, 토 10:00~15:00, 일 휴무

내 손으로 표현하는 이야기

흙이랑붓이랑 미술도예공작소

글·사진 이희순 노원아띠 기자단



출퇴근길에 늘 시선을 사로잡던 공방 흙이랑붓이랑에 다녀왔다. 약속 시간에 방문하니 공방 선생님이 따뜻한 오미자차를 내주었다. 공방 안의 작품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다. 다양한 채색과 모양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차분한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로 작품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 설명하는 선생님. 흙으로 만들거나 초벌한 기물에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만드는 기법 중에서 기계의 힘을 빌려 그릇을 빚는 물레 성형도 배울 수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완성된다. 이곳에선 어린이 도예부터 청소년, 성인 도예까지, 연령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식기부터 소품까지 직접 내 손으로 빚어내고, 흙의 성질과 유약 바르기까지의 도예의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흙을

주무르면 하소연의 수다가 없어지고, 흙을 다듬다 보면 오가는 정이 전해진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내 손에서 의미 있는 생활 식기가 완성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공방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따뜻하고 아기자기하여 현실과 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오로지 나를 위해 특별하게 힐링하는 시간과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었다.

흙이랑붓이랑 미술도예공작소

A.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2길 64 신동아아파트 상가동 107호

H. blog.naver.com/kwj315

[instagram/h_irang_b_irang](https://www.instagram.com/h_irang_b_irang)

T. 010 8966 7519

O. 일~금 10:00~18:00, 토 10:30~14:00, 직장인 야간반 19:00~22:00



기억 속의 가을은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로 신나면서도 바쁜 달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조용한 한 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축제를 기다리고 문화예술인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모두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한 축제가 시작되었다.

글 김채은

PEOPLE

잠깐 지구에 놀러 온 외계인처럼

소리꾼 이희문



화이트 톤의 깔끔한 공간 속에 여러 색을 가진 소리꾼 이희문이 있다. 가발을 쓰지 않은 모습에 어쩐지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매번 독특하고 파격적인 콘셉트로 찾아오는 이희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김채은 사진 Hae Ran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하는 소리꾼 이희문입니다. 최근 30년 된 집을 인테리어 했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웃음). 지금은 마무리 단계고요. 하다 보니 인테리어가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젝트 그룹 ‘오방神과’로 돌아왔어요.

사실 ‘오방신과’ 앨범은 올해 초에 나왔어요. 작년 12월 첫 콘서트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앨범 활동을 잘 못 했죠. 지금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거라서 콘셉트에 변화를 주고자 했어요. 오방신과는 형광 그린 색이 포인트예요.

형광 그린 색을 포인트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형광은 자연을 거스르는 색이에요. 오방신과 아트워크를 해준 박승건 디자이너가 형광을 다양하게 써보자고 해서 ‘형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거기서 한 단어가 눈에 띄었죠. 발광. 발광은 신나고 흥이 날 때 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재능, 끼,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날 때도 발광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발광하자!’라는 의미로 형광 그린 색을 선택했어요.

비주얼 콘셉트를 정하거나 곡 작업을 할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사람이요. 제가 주로 협력 구조로 작업하다 보니 뮤지션, 아티스트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영감을 받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많이 꼬집어 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영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제 이야기죠. 사람들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요. 그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계속 작업을 통해 펼쳐내는 것 같아요.

전통음악이 이렇게 중독성 있고 세련된 음악인지 몰랐어요. 이희문만의 파격적인 전통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전통음악의 스킬을 배우는 사람이긴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좇는 걸 저도 좇고 향유하면서 살아왔죠. 클럽도 다녀봤고요(웃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향유하는 것들을 전통음악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고정관념 같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 더 힘들어하셨고요.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사실 이 음악을 전통음악 예술가가 하지 않았다면 파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전통음악 스킬을 모두 연마하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음악을 하니 반응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한계를 이겨내신 거네요.

먼저 매를 맞은 거죠. 하고 싶은 음악을 했을 때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내가 무대에서 행복해야 그것이 옳게 관객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내가 더 행복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말아라’를 정말 좋아해요. 이번 오방신과 노래 중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너무 어렵네요(웃음). 이 노래는 이래서 좋고, 저 노래는 저래서 좋은데... 우선 타이틀곡은 ‘허송세월말아라’예요. ‘오방신과’라는 프로젝트는 작년 KBS1 <도올아인 오방간다>를 통해 시작되었어요. 제가 ‘오방신’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 당시 ‘소울소스’라는 밴드와 음악을 했었죠. 그때는 음악을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이후 제가 부탁을 해서 노래가 나오게 되었어요. 방송에 나온 버전과 지금 버전은 달라요. 그때는 프로그램 상황에 맞게 노래의 인트로 부분을 <007> 시리즈 같이 만들었거든요. 우연히 가수 이은하 씨가 부른 ‘네가 좋아’를 듣게 되었고, 인트로가 디스코인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인트로로 디스코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서 디스코풍의 인트로로 바뀌게 되었어요.

또 다른 곡의 에피소드도 듣고 싶어요.

‘노랫가락’이라는 곡이 있어요. 레게 느낌의 곡이죠. 이 노래는 테크닉적인 요소가 많아서 경기민요 중에서도 부르기 힘든 곡이에요. 최소 10년을 노래해야 자기 느낌대로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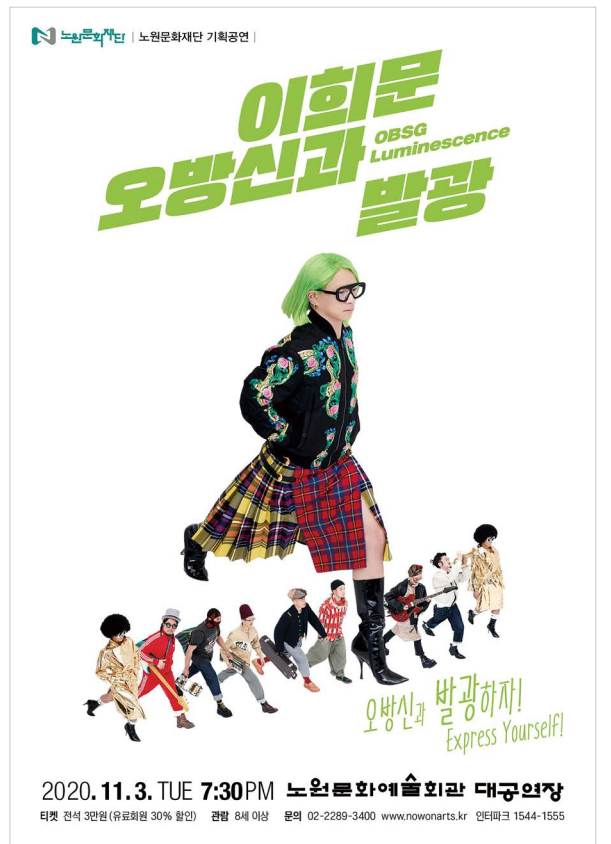
는 이 노래를 빠른 박자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제가 너무 쉽게 부르니까 밴드를 포함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직접 불러보면 이 노래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웃음).

공연 <오방신과 발광>의 특별한 점을 소개해 주세요.

우선, 지금까지 없었던 오프닝 무대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 오진 않았지만 그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한테 소리를 배워 막 대학을 졸업한 제자와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발굴한 루디라는 친구랑 작업을 시켰는데, 곡이 재미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방신과’의 이니셜 OBSG를 박승건 디자이너가 만들어줬는데 예뻐서 공연할 때 이니셜이 많이 보이게끔 디자인했어요.

앞으로 ‘이희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해요?

지구에 잠깐 놀러 왔던 외계인이요(웃음).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의 자연 습지, 사람이 자연 되는 우포늪

김기춘 우포늪 생태사진전

2020 기획초대전으로 김기춘 작가의 〈우포늪 생태사진전〉이 노원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8년 전 우포로 귀농한 김기춘 작가의 사진전으로, 우포늪의 생물과 사계절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담았다. 우포늪은 람사르 습지이자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등록된 최대의 습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의 신비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 습지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사진 백은정 노원아띠 기자단

우포 사랑 이야기를 사진에 담다

김기춘 작가는 앓고 있던 당뇨 합병증인 백내장 질환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우포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덕분에 아름다운 우포늪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고,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70% 정도 되찾았다. 작가는 자연이 자신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작가가 자연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우포 사진에 후기 인상파 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까지 표현해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포늪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관람객과 함께 아름다운 우포를 아끼고 잘 보존하는 데 작은 도움과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우포늪은 국내 최대 규모 2,505,000㎡의 자연 내륙 습지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3포 2벌(우포, 사지포, 목포, 쪽지벌, 산밖벌)의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다. 작가는 생태 천국인 우포늪의 여러 가지 경관을 사진기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해돋이, 우포의 아침, 안개 낀 늪 등 여러 가지 소재로 된 사진 50여 점을 전시했다.

사진을 처음 봤을 땐 전체적으로 사진이 아니라 수채화나 수묵화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잔잔하고 은은하면서 고요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은 제각각 자기만의 색깔을 지니며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진은 인화지에 인화하여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김기춘 작가의 사진은 인화 형식도 다양했다. 인화지가 아닌 캔버스에 직접 인화한 작품도 있고, 도자기 액자를 이용할 뿐 아니라 롤스크린에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한 작가의 노력이 엿보였다. 작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우포늪을 멋진 사진으로 뽐내고 있었다. 우포늪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이후 멸종한 따오기다. 2008년, 한국과 중국의 점진적 우호 관계를 기원하며 상징적 의미로 기증받은 따오기 한 쌍을 우포늪에서 번식시킨 것이다. 번식시킨 따오기를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40개체를 자연 방사 및 유도 방사를 하고 있다. 작가는 소중한 따오기를 위해 따오기 복원센터에 가서 매일 청소를 하고 먹이를 주며 따오기를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며 따오기 사랑을 키워왔다. 덕분에 따오기도 작가를 알아보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작가와

유대관계를 맺으며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따오기를 사진에 담기도 하고, 나아가 따오기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다. 작가의 사진 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사진은 이끼가 나무를 뒤덮거나 넝쿨과 나무가 뒤엉킨 사진들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작가는 훼손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후대까지 보여주고 싶어 사진에 그대로 담을 수 있게 노력했다고 한다.

전시회 중앙에는 생태계에 관련된 책과 개구리와 부엉이 모형, 돋보기, 평의 깃털 등을 같이 전시해 마치 전시회장이 우포늪인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작가가 사진 찍을 때 주로 입은 옷과 신발, 카메라, 삼각대 등을 진열하여 작가의 사진 찍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 흥미를 더했다. 특별 이벤트로 작가의 작품 중 마음에 드는 한 점을 선택하여 안내 데스크에 사진 인화를 문의하면 무료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인화를 해주었다. 멋진 사진 작품도 보고 마음에 든 사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고 집에 돌아가서도 감사한 마음이 여운으로 남았다.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관람 후에도 자신의 작품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한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김기춘 작가의 우포늪 사랑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애쓰는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해 본다.



〈우포늪생태사진전〉

일시 7월 20일(월)~7월 29일(수)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아트갤러리

노원문화재단 신진작가展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치던 여름의 한복판, 마을 어귀 다정하게 자리한 상계예술마당에서 시각예술 작가 다섯 명의 에너지 넘치는 전시가 열렸다. 젊은 작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사유, 자유로운 표현을 가까이 엿볼 기회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걸음했다.

글·사진 이려진 노원아띠 기자단



2020년 노원문화재단 신진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다섯 작가의 작품을 만끽하기 위해 두 차례 상계예술마당에 방문했다. 〈2020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이다빈, 정태후 작가의 2인전과, 김영곤, 문송현, 신지연 작가의 3인전으로 두 번에 걸쳐 4주간 진행되었다.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신진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새롭고 매력 넘치는 작품 세계를 소개해 왔다. 올해 역시 뛰어난 작가들의 선정과 활약으로 집 가까이에서 풍성한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동네 주민이자 또래 작가로서 무척 반가웠다.

2인전 이다빈, 정태후

2인전은 강렬한 페인팅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분위기에 압도된 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전시장의 관객들은 고요한 걸음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동선을 따라 이다빈 작가의 어둡고 짙은 유화 작품들과 처음 마주했다. 그림의 명도와 거친 질감은 사방이 희고 밝은 전시장과 대조를 이루었다. 죽음, 공포, 불안, 어둠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고, 그림을 찬찬히 살펴수록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다. 작품을 통해 관객이 내면의 어두운 감정과 마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서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정태후 작가의 페인팅에 시선이 달았다. 유성물감 특유의 선명하고 윤기 나는 질감과 시원하고도 섬세한 화면 묘사가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그림 속 인물의 표정과 몸짓,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동물과 식물, 병, 시계, 초 같은 여러 오브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림 속 이야기와 상징에 대해 마음껏 상상했다.

3인전 김영곤, 문송현, 신지연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금빛이 눈길을 끌었다. 동판에 아크릴로 그린 후 굵어낸 듯 표현한 문송현 작가의 페인팅을 유심히 살폈다. 문지르기, 쌓기 등 반복적인 행위로 강화되는 인간의 욕망과 염원이 화면 속에 선명히 드러났다. 그리고는 김영곤 작가의 입체 작품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양한 빌딩의 모습을 한 단단한 오브제들 뒤로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거울을 통해 빌딩의 앞모습을 보는 동시에 뒷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직선의 교차로 묘사된 빌딩의 앞면과는 달리 거울 속 빌딩의 뒷모습은 곡선으로 일그러져 왜곡되어 있었다. 도시와 도시 사람들이 가진 이중적인 면모를 시각화하고자 했다는 작가의 의도에 공감하며, 무엇보다 흙으로 빚은 도시라는 점에서 기이한 매력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신지연 작가의 평면 작품을 감상했다. 긴 두루마리에 펼쳐진 이미지가 강렬하게 다가왔다. 막 불이 붙었나 싶다가도, 금방이라도 전소될 듯 보이는 숲을 망연히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이어서 이름 모를 붉은 식물과 새가 가득한 낮선 이미지를 눈에 가득 담았다. 작가의 삶과 예술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가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동시에, 이곳에 오래 머물며 충분히 사유하고 탐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항상 여러 질문을 수반한다. 왜 그렸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 눈동자가 움직이는 만큼 머릿속엔 여러 물음표가 떠오른다. 가끔은 정답을 알고 싶어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전시만큼은 이미지를 좇으며 마음껏 상상하고, 이해를 미룬 채 공감하고 기억하고 싶었다. 젊은 작가들의 무한한 세계를 엿보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 귀가하는 길은 더없이 풍요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번 전시야말로 나에겐 집 앞 5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2020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
일시 2인전 (정태후, 이다빈) 7월 22일(수)~8월 1일(화)
3인전 (신지연, 문송현, 김영곤) 8월 4일(화)~8월 14일(금)
장소 상계예술마당

시끄러운 현대의 삶 속에서 휴식을 즐기다



김희라 초대전: 숨쉬는 것들의 순간

지필묵만을 사용해 자연을 표현하는 김희라 작가의 작품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숨 쉬어가고 싶은 날, 〈김희라 초대전〉을 찾았다.

글·사진 이희순 노원아띠 기자단



먹으로 자연을 형상화한 작가의 작품에서 순백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바라볼수록 마음의 평안함과 차분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의 작품은 작가는 주로 자연과 동물을 담아낸다.

‘BUSH’는 풀숲에서 조심스러운 눈빛의 사슴이 등장하는 그림으로, 긴장감이 고요하게 느껴졌다. 또한, 작고 둥근 나뭇잎과 줄기의 흐름으로 쌓인 풍성함 속에 숨은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흔들리는 새’는 키 큰 풀들의 무성함과 흔들림, 그곳에 금방 날아갈 듯한 참새를 그려내 가라앉은 고요함을 깨트렸다. 이 작품에서 풀의 덩어리감을 표현하기 위한 버드나무 연작이 구상되었다고 한다. 전시장 입구 가까이에 전시되어 있던 ‘여름’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넣어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렸는데, 먹을 이용해 나뭇잎, 얼룩진 벽면을 과감하게 표현해 한국화적 느낌을 담고 있는 작가의 풍경을 실험해 보았다고 한다.

‘호숫가’는 낮은 화면과 두 종류의 식물로 구성하였으며, 그 사이에 호기심이 있는 오리로 시선을 화면 구석으로 유도했다. 자연은 욕심, 화, 슬픔 같은 모든 것을 잠재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치유한다. 작가는 산책하며 시선이 머무는 나무, 풀들을 살피고 관찰하여 머릿속에 영상을 만들어내고, 화려한 자연, 풍성한 숲, 활기찬 나무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게 상상해 낸다. 마치 자연 안에 있듯

이 작품 앞에서 모두가 차분해지며 평화 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의 평온과 평정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작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나를 위한 식물 드로잉’ 공간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나 바람을 담고 있는 식물을 골라 붓펜이나 워터브러쉬로 식물을 표현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붓펜으로 한지 위의 식물 그림을 따라 선으로 그린 뒤, 워터브러쉬를 활용해 농도를 표현해 보면서 나를 위한 식물 드로잉에 참여할 수 있다. 아카시아, 은행나무, 유칼립투스, 네잎클로버, 수양버들, 올리브나무 등을 따라 그려보며 잠시나마 펜 드로잉의 매력에 푹 빠져 보았다. 하나씩 봐도 멋있고, 웅기종기 모여 있어 눈길이 머무는 나뭇잎, 돌과 흙, 자연 그대로의 선과 색감, 자연의 비율. 순간의 이끌림에 별안간 그림을 그려보았다. 오랜만에 드로잉을 하는 동안 머릿속의 온갖 잡념들이 사라진 평온함을 느꼈는데, 이번을 계기로 가끔은 주섬주섬 꺼낸 노트에 즉흥적으로 드로잉을 했던 잊힌 나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김희라 초대전: 숨쉬는 것들의 순간〉

일시 8월 14일(토)~8월 22일(토)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아트갤러리

매듭으로 인연을 엮다



라임 알구스의작은공방

북서울시립미술관 주변의 라임 알구스의작은공방(이하 ‘공방’)을 찾았다. 각종 상업 시설로 복잡한 복합센터 안에서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원석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는 쇼윈도를 발견한다면 바로 그곳이 김미현 작가가 운영하는 마크라메 공방이다. 마크라메로 만든 가방, 러그, 주얼리, 꽃 등 없는 게 없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글·사진 정소나 노원아띠 기자단

알구스와 마크라메

2년 전부터 유행하던 공예 중 하나인 마크라메는 서양 매듭 공예를 말한다. 어원은 장식술이라는 뜻의 아랍어 마그라마(migramah)인데, 점차 실생활에 매듭이 응용되며 장식품으로도 사용된다. 젊은 사람들은 남미 여행 등을 통해 생활 소품이나 액세서리에 쓰인 마크라메를 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960~70년대에 이미 마크라메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공예를 잘 아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 이 공방은 동양 매듭이 아닌 서양 매듭만 취급한다. 서양 매듭의 특징은 동양 매듭보다 쉽고, 실생활에 유용하고 입체적이며, 다양한 것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방은 김미현 작가의 애정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마크라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공방 이름이 궁금해졌다. 그런데 이름의 유래를 알고 나니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알구스’는 컴퓨터 대화명이자 본인의 이름 ‘미현’을 영어 키보드로 그대로 누른 것이라 한다.

나만의 액세서리

김미현 작가는 오랜 시간 캐릭터 개발과 문구 디자인을 해온 팬시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면서 마크라메를 배우게 되었고,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우연히 매듭으로 싸인 원석 주얼리를 보고 한눈에 반해, 해외 서적을 직구하고 마크라메를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아다닐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디자이너가 전직이다 보니 패키지 디자인부터 다양한 업무를 손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그녀. 공방 이름만큼이나 작가의 공방 운영 방식이 독특했다. 재작년까지는 ‘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했고, 작년부터는 아이디어스에 입점하여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방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원석 액세서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 중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싶어 시작한 공방이라 이곳저곳 홍보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고, 마크라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원석 주얼리를 판매하는 것이 이 일을 시작하며 생긴 목표다. 그 소박함 때문에 공방 위치도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이나 종로, 이태원이 아닌 노원을 선택했다. 구민들이 마크라메를 가까운 곳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공방에 왔으니 기본적인 마크라메를 배워 팔찌를 만들어 보았다.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원석을 선택하라는 그녀의 말에 모스 아게이트를 골랐다. 원석 안에 이끼 같은 것이 들어 있어 신비함이 느껴졌다. 그다음엔, 각각각색의 실 가운데 원하는 색을 골라 매듭을 시작한다. 가장 쉬운 두 줄 꼬기, 평 돌기 매듭 등을 사용했는데 크기는 작지만 1시간이 꼬박 걸렸다. 작가가 직접 제작한 특수 도구를 활용해 편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다. 마크라메는 실과 부자재, 집게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 수 있다. 원석을 활용한 마크라메는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색으로 자신을 표

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한다. 뜨개질을 못 해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무관한 것이 마크라메의 장점이다. 김미현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요즘은 하루나 마타타 무늬의 마크라메를 제작 중이다. “고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알구스의 색깔이 담긴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며 소박한 미소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을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공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마음처럼 지역과 공예에 대한 애정이 많은 알구스의작은공방을 응원한다.



라임 알구스의작은공방

A.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씨앤미빌딩 2층 204-1호

H. blog.naver.com/algus9797

[instagram.com/algus97](https://www.instagram.com/algus97)

T. 02 977 8329

O. 평일 10:30~17:30

* 원데이 클래스: 마크라메를 이용한 심플한 원석 액세서리 만들기(성인 수업 가능)

* 클래스 수강 혹은 제품 구매 시 주차 3시간 가능



부모를 향한 효심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

한글이 반포된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 당시, 한글로 새겨진 비석이 처음 만들어졌다. 한자로 새겨진 비석은 보통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해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읽기 쉬운 한글로 부모님의 비석을 새겨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한글로만 쓴 문헌이 18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16세기에 한글로만 비문을 지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부모 사랑을 향한 효심 또한 현대인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글·사진 장영범 노원아띠 기자단

‘한글비석로’에 대하여

노원구의 도로명 주소 중 ‘한글비석로’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글비석로는 노원구 하계동과 상계동을 잇는 도로다. 이 도로명은 도로가 지나는 곳에 보물 제1524호인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가 있는 데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는 언제 만들어졌고 얼마나 중요한 유산이기에 보물로 지정이 되고 도로명 주소로까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 묵재^{默齋} 이문건^{李文健}이 부친인 이윽탁^{李允濤}의 묘를 모친인 고령^{高靈} 신씨^{申氏}의 묘와 합장하면서 1536년(중종 31년)에 묘 앞에 세운 한글 묘비다. ‘한글고비’라는 이름으로 1974년에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에 보물 제1524호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는 한글이 새겨진 우리나라 최초의 석비라는 점에서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고, 국어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비석의 내용

이 묘비에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묘주의 이름과 일대기가 새겨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한글과 한문으로 경계문이 새겨져 있다.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석과 묘역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자식으로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경계문에 사람들이 비와 묘역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새겨놓았다. 비석 왼쪽의 한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신령한 비석이므로 훼손하는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를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리노라.”

합장묘를 세우고 묘비를 만들게 된 경위는 이문건의 《묵재일기^{默齋日記}》 중 1535년 11월 1일부터 1537년 6월 3일까지의 기록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책을 좋아해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서점에 《묵재일기》를 검색해 보니 6권으로 이루어진 세트가 정가 30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비석의 오른쪽에도 한자로 ‘불인갈^{不忍矧}’이라고 새긴 큰 글자 밑에 두 줄로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실제 한글영비는 ‘영비각^{靈碑閣}’ 안에 있다. 밖에 있는 한글 비석은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으로 제작된 것이다.

방문하는 방법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는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별도 주차장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가용으로 갈 경우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길가에 이윽탁 한글영비 표지판이 보이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잔디밭이 조성된 묘소와 비석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귀한 역사적 자료가 후대에 잘 보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

A.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02

축제가 가져야 할 키워드 대동大同, 동락同樂, 상생相生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칼럼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아직 전 세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예술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더는 멈춰 있지 않다. 작지만 바쁘게, 그리고 알차게 움직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축제와 예술이 가진 기본인 ‘대동, 동락, 상생’으로 돌아가 축제를 생각해야 한다.

글 김승국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우리 축제의 기본 정신은 대동, 동락, 상생이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무·악歌舞樂을 즐겼다. 전국 어느 곳에 가도 노래방이 성업 중이며,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우리의 민족성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는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많은 축제가 생성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축제의 시작은, 문헌상으로는 상고 시대인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을 시원으로 여긴다. 특히 북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신을 맞이하던 부여의 영고는 일종의 ‘맞이굿’으로서 전통적으로 마을마다 제천의식의 한 형태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무사안녕無事安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洞祭인 ‘마을굿’으로 발전하였다. ‘굿’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거나 신명 나는 구경거리’다. 즉, 굿은 원래 ‘모인다’라는 뜻인 것이다. 모여서 공동체 안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풀어 가며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러므로 마을굿은 우리 고유의 마을 축제로 대동, 동락, 상생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인이 되어 함께하고,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창출해 낸다는 뜻이다.

온택트Ontact,

주인이 주체가 될 기회가 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가 중단되었지만, 축제가 변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 난장을 즐기던 <춘천마임축제>는 춘천 지역 100곳의 일상 공간을 무대로 100개의 신Scene을 만들어내는 ‘춘천마임백싌: 100Scene’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보령머드

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축제 형식을 선보였다. ‘집콕머드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에서 양방향으로 시민들을 만났고, 집콕머드체험 키트를 구매한 참가자들이 체험 이용 사례를 공유했다. 직접 머드축제를 즐길 순 없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오히려 참여의 폭을 더 넓힌 축제라는 평가다. 노원문화재단에서도 온라인 공연과 소규모 오프라인 공연을 병행하고 있다. <버스킹 콘서트>가 주말마다 노원구 곳곳에서 열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경춘선숲길 거리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구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온라인 공연을 펼치는 랜선 콘서트 <비켜라 코로나 힘내라! 대한민국>도 새롭게 시도했다. 비대면 공연이 많아지면서 축제에서 지역 주민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구민을 중심에 두고, 축제의 본질에 집중할 때다. 지역과 전문가가 적절하게 협력하여 대동, 동락, 상생이라는 축제의 기본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 노원’을 말하다

노원문화재단 1주년 기념, 제2회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포럼

노원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노원은 ‘문화도시’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까? 노원문화재단은 제2회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포럼(이하 ‘포럼’)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사진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이번 포럼의 주제는 ‘문화도시 노원 추진방안과 코로나 이후 문화재단 발전방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좌장은 박영정 연수문화재단 대표가 맡았으며, 각 계층의 전문가와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위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도시 노원’ 추진

1부 주제는 ‘문화도시 노원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나윤빈 고려대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외래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나윤빈 교수는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과정에 관해 설명하며, 노원구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노원구의 도시발전 계획 2040노원플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이후 김병호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위원, 박현승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팀장, 안태호 웹진 예술경영 편집장, 박상규 중앙대학교 서비스모델연구실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소통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승국 이사장은 이에 대해 “노원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목표다. 또한, 문화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며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를 위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찾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일시 정지됐던 문화예술, 이젠 다시 시작

이어진 2부에서는 이창기 전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공연계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의 문화재단 발전방향’에 관해 발제했다. 토론은 우귀옥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위원, 유동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예술인긴급지원팀장이 참여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개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온택트형 ‘랜선 시즌제’ 도입, 철저한 방역 체계로 면대면 공연 확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하드웨어 보완 등을 앞으로의 실천 과제로 제안했다. 포럼 중간중간에는 실시간 댓글로 구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구민들은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온라인 공연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열띤 토론이 오간 포럼은 2시간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포럼의 결론은 문화도시를 구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원구가 무늬만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 구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겪어온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당황하고 주춤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용감하게 일어섰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예술을 보여준다. 누구나 동등하고 편하게 즐기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겨보자.

글 김채은

PEOPLE

문화예술을 이끄는

노원구 문화PD를 만나다



월계권역 문화PD
이현주

노원구민을 위한 마음

문화PD가 되고 난 후, 10회차에 걸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과 축제, 공연 등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통해 노원만의 문화예술을 만들기 위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죠. 지금은 권역별로 문화PD 소모임을 통해 권역 내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장혜경PD님, 김현숙PD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 모두 문화예술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김현숙PD님은 가족공예와 도예 강사예요.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 활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수료 후, 적극적으로 마을살이를 시작하셨죠. 또,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동하고 계시죠. 장혜경PD님은 2012년부터 한강거리공연예술가이자 서울거리예술가로 활동했어요. 2017년에는 서울시 봉사상과 〈제1회 전국 호남향토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이후,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화예술경영 석사 과정을 진행했다고 해요.

앞으로의 다짐

문화PD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예술 기획 능력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이야기, 구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신중하게 듣는 문화PD가 되는 게 제 목표이자 다짐이에요.

노원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월계, 공릉, 중·하계, 상계 권역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예술적 환경을 만드는 노원구 문화PD를 만났다.

글 김채은 사진 Hae Ran



공릉권역 문화PD
성지현

노원구민을 위한 마음

신기하게도 공릉권역 문화PD는 모두 시각예술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같았고,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노원에서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하려고 여러 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

사기리PD님, 정혜선PD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사기리PD님은 일본 분이예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5년째 공릉동에 거주하고 계시죠.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노원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지역 봉사활동과 더불어 간간이 그림책 삽화가이자 화가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정혜선PD님은 도예와 문화예술행정을 전공하고, 줄곧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오셨어요. 요즘에는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쇠락해가는 지역을 마을 미술로 변모시키는 공공미술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죠.

앞으로의 다짐

문화PD가 되기 전부터 생각하던 ‘지역 예술가들의 발굴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 공간을 통해 노원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중·하계권역 문화PD
이진숙



상계1권역(1~5동) 문화PD
이현순



상계2권역(6~10동) 문화PD
김연정

노원구민을 위한 마음

중계본동을 시작으로 104마을과 서울시생활문화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104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인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 마을 안에 서울시생활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조만간 사라질 곳이기 때문에 마음 한쪽이 슬퍼졌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이곳에서 예술인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나누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이권화PD님과 편은심PD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 모두 지역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예요. 이권화PD님은 미술경영을 전공하고 문화예술교육사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편은심PD님은 중구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 지역문화 기획 등을 하셨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구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 및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죠. 저희 권역 PD들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색공간과 문화유적 조사, 지역예술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찾고,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까지 조사해보려고 해요.

앞으로의 다짐

지역 예술인과 이색 공간을 찾아보고, 지역 내 생활예술 동아리와 소모임을 파악해 이들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화PD가 되고 싶어요. 노원의 지역 주민으로서, 문화PD로서 노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요.

노원구민을 위한 마음

문화PD는 지역에서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 그들이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와 지역, 그리고 일반 주민이 서로 끈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인 거죠. 최근에는 상계1권역 중 당현천 위아래가 모두 연결되는 축제와 행사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장 조사와 자료 조사를 진행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장용철PD님, 한윤정PD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상계 1~5동은 다양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네로, 동별 편차가 큰 지역이에요. 저희는 각 동의 축제 문화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끌어지는 축제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공동체 소모임과 연결하는 일을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해요. 모두 열정적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앞으로의 다짐

지역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융합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각각의 성질을 파악해야 일이 잘될 텐데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앞으로 당연히 힘든 일도 생기겠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처럼 온전히 다 겪어보려고 해요.

노원구민을 위한 마음

문화PD로서 알아야 할 지역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등에 대해 공부했어요. 머릿속에 돌아다니던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다듬어지고, 여러 손을 거쳐 실제로 기획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신나더라고요. 지금은 상계2권역의 공간 개발 조사와 예술인 자원 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재미있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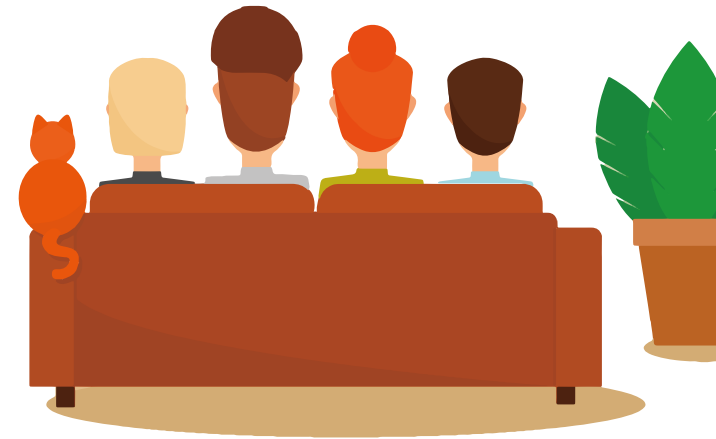
백선관PD님, 최혜미PD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모두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신데요(웃음). 백선관PD님은 성악과 지휘를 전공하셨고, 공연과 강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노원구 생활합창활성화프로젝트와 생활예술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이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조율이 가능하신 멋진 분이세요. 플루트를 전공하신 최혜미PD님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이수하고,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한, 다양한 끼와 재능으로 ‘슈퍼마미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계시죠. 이렇게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즐겁고 기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다짐

우리나라엔 ‘꼭두’라는 것이 있어요. 사전적으로, 가장 이른 시간이 나 물체의 가장 윗부분을 뜻하죠. 쉽게 말하면 천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는 꼭두가 되어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문화예술로 지켜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노원구 문화PD

월계권역 김현숙, 이현주, 장혜경
공릉권역 나카가와 사기리, 성지현, 정혜선
중하계권역 이권화, 이진숙, 편은심
상계1권역(1~5동) 이현순, 장용철, 한윤정
상계2권역(6~10동) 김연정, 백선관, 최혜미



다시 일상 속 행복을, 함께 위로받는 랜선 콘서트



비켜라 코로나 힘내라! 대한민국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요즘, 노원문화재단이 노원구민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 바로 랜선 콘서트 <비켜라 코로나 힘내라! 대한민국>이다. 힘든 일상 속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가득한 이번 콘서트는 노원구민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들이 직접 신청한 노래들로 채워진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구민의 이야기와 노래가 번갈아서 진행되는 형식의 콘서트는 전 연령을 아우르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글 조독신 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우귀옥

이런 기회에 내 힘을 보태고자 바로 신청을 했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추기열

이야기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공릉동에 거주하는 ‘면마스크 의병단’ 우귀옥 여사였다. 우 여사가 참여한 면마스크 의병단은 코로나 상황 속 시민의 참여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3만 5천 개의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0일간 3차에 걸쳐 진행된 면마스크 의병단은 마을에서 재봉틀을 잘 다루기로 소문난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의병처럼 모두 모여 마스크를 만든 활동을 일컫는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취약계층과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양질의 마스크가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우 여사는 “가위

질로 물집이 잡히고, 다림질하다 손이 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다”며 의병단 활동을 회상했다. 그녀는 빨간 패턴의 면 소재를 걸감으로 두고 안쪽에 필터를 장착한 재활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신청한 곡은 추기열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다. 제목과 가사처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상황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함께 털어내자는 의미를 담아 신청했다고 한다.

기본수칙을 지키며
모두 힘냅시다!

방역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노원구 보건소의 이연지 간호사와 강소현 간호사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해외입국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자를 관리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기본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연지 간호사는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돌아온 후에는 꼭 손을 씻자”며 기본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두 간호사의 신청곡은 이봉근의 ‘썩대머리’다. 근무를 마치고 방역복을 벗으면 항상 머리가 썩대머리가 될 정도로 땀을 흘린다며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했다.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재치로 승화한 선곡은 이봉근의 구성진 판소리 가락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특히 이 노래는 《춘향전》속 춘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기도 해서 열린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울림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하계동에 거주 중인 연초초등학교 1학년 학생 최세영 양과 최세인 양은 친구들과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내일이 서둘러 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아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를 신청했다. 그렇게 이어진 노래 세 곡은 콘서트 분위기를 힘껏 달아오르게 했다. 그다음으로 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표로 정광 씨가 목소리를 냈다.

중계동에서 즉석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다”고 힘들어하면서도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예전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냈듯이 지금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모두 힘내자”라고 사람들을 다독였다. 소상공인에게는 사람들의 더 많은 응원과 도움의 손길이 그 무엇보다 힘이 되는 지금임을 잊지 말자. 하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심재우 씨는 노년층을 대변해 “예방수칙과 비대면, 비접촉의 삶에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힘내자”고 덕담했다. 뒤이어 방과 후 교실 선생님이 김혜정 씨는 “입학식이 연기되는 순간에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수업은 재개됐지만, 방과 후 교실을 재개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시간 동안 퍼즐이나 보드게임을 함께 즐기는 시간도 늘어서 가족애가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신청곡 ‘넌라 판타지아’를 광동현 씨와 박요셉 씨가 듀엣으로 열창하며 콘서트 분위기가 한층 더 깊어졌다. 여름밤과 어울리는 서정적 가사와 따뜻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무대였다.



봄의 새싹처럼 다시 함께
일어나는 그 날까지

마지막을 장식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청의 전 직원과 함께 부산, 밀양, 인천, 양주를 돌아다니며 구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마련하던 순간을 추억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임을 생각할 때다. 모기가 있더라도 문을 열고 모기장을 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생활 속 방역과 해법들이 필요한 시기”라며 구민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는 사랑하는 노원구민들과 듣고 싶은 음악으로 김광석의 ‘일어나’를 신청했다. 머지않아 봄의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는 날을 한마음으로 기다리며 콘서트는 막을 내렸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지금,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래로 위로를 받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

노원아띠 기자단이 소개하는 집에서 하는 문화생활

집콕 문화생활

코로나19로 바깥 나들이가 힘들어진 요즘, 노원아띠 기자단은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을까? 기자단이 추천하는 집콕문화생활을 소개한다.

한지와 먹과 물감

김희라 작가 전시회 관람 후
그림 그려보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2020 노원문화재단 기획초대전, 김희라 작가의 〈숨쉬는 것들의 순간〉을 관람한 후 집에서 아이들과 한지에 먹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글·사진 백은정 노원아띠 기자단



무엇을 그릴까 고민해 보는 행복한 시간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무엇을 그릴까 자유롭게 고민해 보았다. 재미있게 읽은 책의 장면을 그리기도 하고, 추억을 떠올리며 가장 행복했던 장면을 그리는 등 저마다 다양한 주제를 떠올리며 연필로 스케치했다. 화선지만의 장점인 얇은 두께를 이용해 그림의 외곽선을 따라 그려보기도 했다. 물론, 실수했을 때 지우개로 잘 지워지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지만, 화선지만의 특징을 파악할 기회이기도 했다. 김희라 작가도 화선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를 매우 자세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전시 해설사의 말을 기억했던 터라 아이들은 눈동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정성스레 그림을 그렸다. 스케치한 후 붓으로 먹물을 찍어 선을 따라 외곽선을 그리고, 농도에 따라 색칠도 해본다. 아이들은 먹이 자연스럽게 번지는 모습을 보며 화선지만의 특징을 하나 더 알게 됐다. 또한, 붓의 필압을 조절하며 다양한 먹의 두께를 표현하기도 했다.



상상으로 채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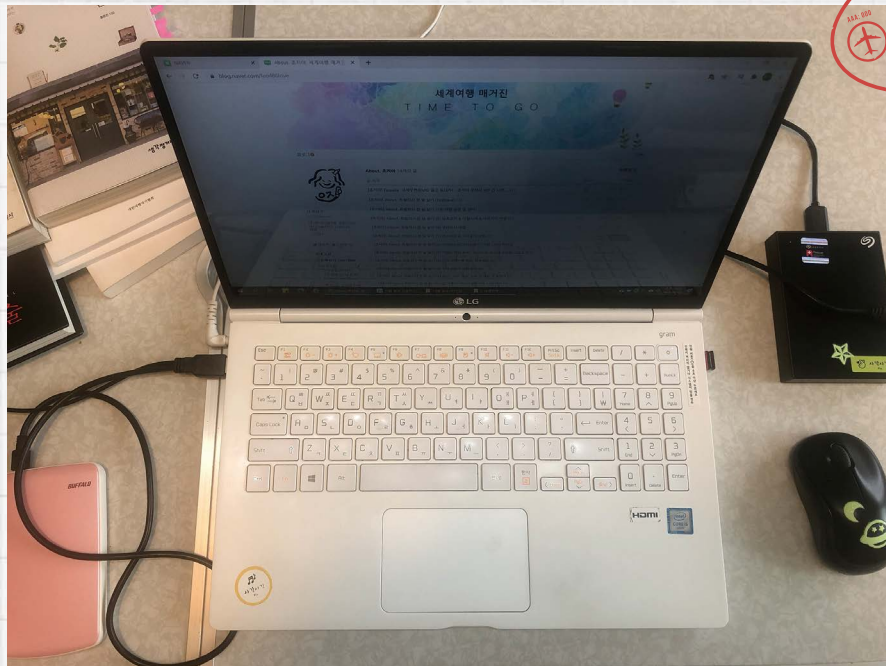
먹으로 외곽선을 따라 그린 후 물감을 이용해 채색했다. 먹과 물감의 혼합 채색도 나름 어울리며 멋들어 보인다. 화선지에서 물감이 점점 넓게 퍼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물감이 스스로 채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재미를 느낀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화선지의 느낌을 다양하게 체험해 보며, 한 가지 색깔로도 여러 가지 농도를 표현해 보기도 한다. 정성껏 채색한 후 완성된 그림이다. 책에 있는 그림보다 더 멋스러운 작품이 나와 뿌듯했다. 아이들은 화선지와 먹, 물감의 세 가지 조화로움을 느껴보며 김희라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고, 다른 작품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직접 그려보니 먹이 번지고 화선지가 얇아 정밀하게 채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김희라 작가의 그림을 다시 보니 나뭇잎 하나까지도 정말 세심하게 그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이 많아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화선지와 먹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림을 통해 모두가 차분해지며 평화 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의 평온과 평정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는 김희라 작가의 바람처럼 아이들과 직접 작품을 그려본 후 집에서나마 작은 전시회를 열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Replay, 집 안에서 여행 다시 가기

여행 블로그 작성법

야외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요즘, 예전에 갔던 여행을 정리하며 그때의 감흥을 다시 느껴보자. 혼자 보는 여행기도 좋지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가능한 블로그에 여행을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 나는 작년 떠나 올해 코로나로 급하게 다시 돌아왔던 세계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글·사진 김윤지 노원아띠 기자단



첫째,
여행지를
공부한다.

여행기 작성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행지가 해외면 외교부의 국가별 개황을, 국내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가져온 팸플릿을 꼼꼼히 보고,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으면 위키백과 검색을 한다. 여행지를 더 많이, 정확히, 자세히 알기 위해서다. 여행을 가기 전에도 책과 온라인으로 정보를 알아보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 잘 와닿지 않는다. ‘왔다 갔다’로 끝나는 여행이 아닌 식견을 넓히는 여행을 하려면 직접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새롭게 안 사실 중 중요한 것만 골라 메모해 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포스트를 훑어보며 놓친 정보나 달라진 부분 등을 파악해 같은 내용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여행기
구성을 짚는다.



셋째,
여행 사진을
선택한다.

어떤 내용으로 쓸지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개요를 짚는다. 서론은 지역의 대략적 정보와 가기 전의 느낌 등 호기심 및 전반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쓴다. 2박 정도의 짧은 여행일 때, 본문은 시간순으로 쓴다. 이동 시간, 식사 및 숙박 장소 등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 형태로 넣고, 이후 각 장소 소개 및 리뷰를 한다. 지역 이동이 포함된 3박 이상은 지역별 개요와 이동 방법을 서론에 넣고, 본론은 지역 내 볼거리, 할 거리, 먹거리를 구분해 읽는 사람이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에는 총 경비, 여행 팁, 다음에 갈 때 할 것, 가져갈 것 등 아쉬웠던 점을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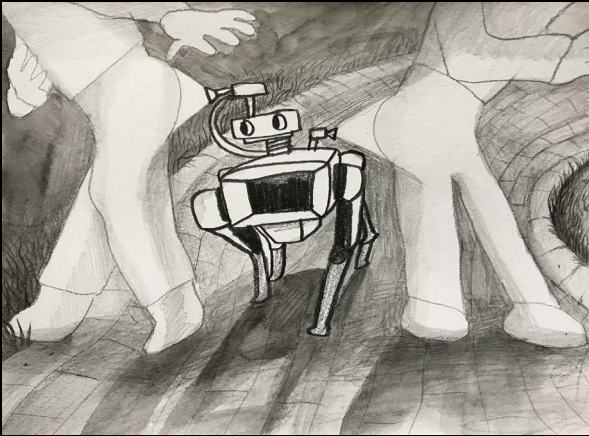
넷째,
여행기
포스팅을 쓴다.

한 포스팅에 들어가는 말, 본문, 나오는 말로 구분해 어떤 내용을 쓸지 단어나 문장으로 초안을 적는다. 사이사이 골라둔 사진 중 가장 적합한 사진을 넣는다. 순서대로 글을 쓰면서 필요한 정보나 지도, 동영상, URL 등을 추가한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으로
검토한다.

맞춤법 검사 후 같이 여행한 남편에게 읽어보라고 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장, 잘못된 정보, 추가해야 할 부분 등 조언을 듣는다. 수정하고 맞춤법 검사 후 블로그에 게재한다. 이번에는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읽으며 이상한 문장, 오타자를 수정한다. 맥락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고, 글이 너무 길면 포스트를 둘로 나눈다.

이렇게 작성하면 여행 포스트 하나에 최소 이틀 이상 걸린다. 여행을 복기하며 그때 감정을 되살려보고, 공부도 되고, 생각 정리 및 글쓰기 연습도 되니 일석 삼조다. 블로그에 너무 과한 정성을 쏟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싶다. 이걸 나에게 맞춰진 여행기 작성 법이고 사람마다 여행기를 만드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나 영상, 또는 감성적 에세이로 표현해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건 좋은 습관이다. 자기를 규정하는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고, 지난 시간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기록일 것이다.



CULTURE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리얼 페이크 뉴스

지난 두 달 동안 나는 김소윤, 봄로야, 조말 작가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인간적인 기이한 뉴스를 수집하여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기후 위기, 환경오염 등의 포괄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기록했다. 열심히 기록한 결과물, ‘리얼 페이크 뉴스’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글 이려진 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제공 김소윤, 봄로야, 이려진, 조말



양 떼가 놀이터에서 뱅뱅이를 탄다고?

*리얼 페이크 뉴스는 코로나 창궐 직후 쏟아진 비인간적인 뉴스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지구의 인간이 다 같이 멈춘 순간,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소식은 ‘인증 사진’이 없었더라면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생경했다.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 뉴스와 가짜 같은 진짜 뉴스, 재난 괴담과 거짓 소문, 출처를 알 수 없는 단편적인 뉴스를 통해 재난 속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달라진 일상과 현상을 드로잉으로 드러내고 표현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미션 1토픽 多드로잉

‘코로나19 팬데믹 그 후… 필리핀 해안 점령한 핑크 해파리 떼’라는 기사를 함께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여 각자 드로잉하고 공유했다.

두 번째 미션 드로잉 토픽 크로스

재난 속 비인간의 ‘진짜 같지만 가짜, 가짜 같지만 진짜’ 뉴스를 찾고, 읽고, 드로잉해 서로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각자 전달받은 이미지만 보고 내용을 추측해 기사를 창작한 후 낭독했다. 프로젝트를 공유하던 SNS 계정에 드로잉 한 점을 올리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드로잉을 보고 함께 상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세 번째 미션 재난 환상 드로잉

코로나 이후 싱가포르 비산-양모교 공원에 투입된 로봇 개 ‘스팟’에 관한 뉴스를 함께 읽고, 각자 ‘***스팟’, 공원의 개, 인간, 정부와 음모론자의 시선으로 짧은 소설을 창작했다. 창작 소설과 드로잉은 웹진 《Echo》에 기고하여 게재되었다.

동료 작가와 만나 그림을 그리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평범한 일상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일단 만나자”라는 말로 시작되곤 했던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갈 곳을 잃었다. 창작이라는 일이 뜬구름처럼 느껴질 때마다 동료 작가 곁에 꼭 붙어 위안과 동력을 얻곤 했던 나이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더욱이 어렵고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지속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을까? 지금 상황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던 김소윤, 봄로야, 조말 작가와 함께 재난 속 달라진 일상과 환경에 대해 사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드로잉 주고받기 프로젝트, ‘리얼 페이크 뉴스’를 시작했다.

네 번째 미션 재난 환상 이어 그리기

종이 한 장을 네 명이 주고받으며 ‘재난 속 내가 원하는 최선의 삶, 재난 이후 도래할 미래’라는 주제로 릴레이 드로잉했다. 종이와 재료, 작은 선물, 드로잉 미션이 담긴 소포가 우편으로 배달되었고, 두 달 동안 소포가 한 바퀴 돌아 각자의 고민과 개성이 섞인 드로잉 한 점이 완성되었다.

모두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리얼 페이크 뉴스’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미지 대화를 통해 마음만은 아주 가깝게 마주했다. 재난을 통해 변화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이해해 왔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인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반성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고민하고, 나아가 창작자로서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동료 작가들과 재난 이후 창작에 대해, 삶의 방식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사유를 확장할 수 있어 특별했다. 다시 모여 떠돌고, 먹고, 궁리하고, 일 만드는 날이 오려면 인간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지켜나가며 나부터 달라지겠노라 다짐해 본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최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기획 공모사업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리얼 페이크 뉴스 프로젝트 [instagram.com/real_fake_news4](https://www.instagram.com/real_fake_news4)

** 재난 환상 드로잉 로봇 개 ‘스팟’ 창작 소설 hysterianpublic.com/text-02

나무 속에 마음을 담아



우크반

원목이 주는 따뜻함과 포근함은 다른 자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목공방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나무 속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목공예의 매력을 느껴보기 위해 목공방 ‘우크반’을 찾았다.

글·사진 이희순 노원아띠 기자단



나를 위한 선물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30대 나의 일상은 코로나까지 겹쳐 지루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날 집을 둘러보니 집에 그럴싸한 벽시계가 없어, 이왕이면 예쁜 원목 시계를 만들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크반 공방에 예약을 잡고, 황금 같은 연차를 내 힐링하러 다녀왔다. 두 시간 정도 진행되는 ‘원목 시계 만들기’ 수업, 처음 도전해 보기에 설레기도 하고, 목직함과 웅장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기계 소리에 살짝 긴장도 됐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인 공방 대표님이 제작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다.

선택의 시작

먼저, 시계를 만들 때 사용할 나무를 고른다. 나는 특수목 중에서도 ‘가이아나 로즈우드’의 매력에 이끌려 선택했다. 가이아나 로즈우는 요즘 대중적으로도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될 만큼 인기가 높은 특수목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집에도 가이아나 로즈우드 도마가 하나 있던 게 생각났다. 나무를 직접 선택하는 재미도 있고, 색감이 예쁜 나무를 고를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월넛, 캄포, 퍼플하트, 로즈우드 같은 특수한 원목과 고급스러운 시계링 색상을 직접 선택하여 나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행동의 시작

재단 위치를 잡아주고, 원목 시계 휠에 맞게 원목 제재 및 가공을 한다. 그 후, 샌딩을 시작하고 라이브 엣지 부분은 또 다른 기계를 이용해 샌딩한다. 선생님이 제작 과정을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데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시계 프레임에 맞춰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고, 대패 작업과 사포질을 반복하는데, 도구

를 다룰 때 어설픔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다. 원목 시계의 무브먼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가공 작업을 한다. 그 위에 오일까지 바른 뒤, 시계 프레임에 잘 깎은 원목을 끼워 넣고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시계 침을 끼워주었다. 로즈우드의 색감은 오일을 바르기 전보다 훨씬 선명해지고 윤기까지 더해져 꽤 그럴싸한 멋진 원목 시계가 완성되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한 기분. 마지막으로 나만의 시그니처를 새겨 넣었는데, 시계를 만든 날짜나 자신의 이니셜 등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글귀를 새길 수 있다. 참고로, 시계는 가로로 걸어도 되고, 세로로 걸어도 되는데, 가로 느낌이 더 안정감 있어 보여 가로로 작업을 마무리했다.

사진과 글로 적어낸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처음 목공을 접하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목재 선택부터 가공까지 모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을 거치는 나만의 작품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이곳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공방 대표님이 세심하게 봐주면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목공과 나무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지친 일상 속에서 힐링을 원하거나, 소중한 지인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다면 나무가 살아 있는 듯한 원목 시계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알루미늄 휠과 나무의 조합, 나만의 원목 시계로 나무가 주는 포근한 거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크반WOOKVAN

A.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9길 63 지하 1층

H. wookvan.me

T. 010 6483 2862

O. 월~토 10:00~17:00(방문 시 사전 전화 필수)

역사체험, 생태체험을 함께

초안산 분묘군과 비석골근린공원 초안산 석물전시장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양반 분묘에서 서민 분묘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덤 1,000개 이상과 상석, 문인석, 비석, 동자석 등 수백여 개의 석물들이 있는 곳이다. 15세기 이래 서민, 중인, 내시, 상궁,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각종 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2002년에 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었다. 주로 내시들의 분묘가 많고 비문이 남아있는 궁녀의 묘비 3기 중 하나인 상궁개성박씨묘가 있어 그 의미가 깊다. 초안산의 아기소망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체험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글·사진 장영범 노원아띠 기자단



초안산 분묘군으로 가는 길

초안산은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정상 이 114m로써 지역주민들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운동하기 좋다. 특히 초안산 곳곳에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와 내시들의 묘를 살펴보면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참나무가 많은 숲길을 걸으며 생태체험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 '초안산 분묘군'을 검색하여 대중교통으로 찾아가 보았다. 인터넷에는 비석골근린공원의 석물전시장부터 출발해 초안산 아기소망길을 따라가도록 안내한 글이 많았는데, 나는 도봉구 창동 쪽에서 시작하여 초안산 정상을 거쳐 비석골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노원14번 버스를 타고 '창3동염광아트빌' 정류장에 내려서 초안산 입구로 향했다. 산으로 향하는 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산행을 시작하며 숨이 조금 차오르기 시작하자 석물이 한 두개씩 보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온 '초안산 분묘군' 지점에는 안내판이 두 개 있을 뿐, 별다른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 약 30분 정도 걸어 초안산 정상에 도착했다. 산길을 걷다 보면 헬리콥터 선착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정상이다.

내시의 묘들이 서쪽으로 향한 이유

초안산 정상을 지나 주변 비석골근린공원 방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상궁개성박씨묘를 발견했다. 비석골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에 초안산 분묘군 안내판과 함께 여러 기의 분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초안산에 있는 내시의 묘들은 대부분 궁궐이 있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묘 앞에 있는 문인석과 상석, 향로석들은 모두 서쪽을 보고 있는 주인을 지키고 있다. 초안산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죽어서도 궁궐을 바라보며 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전해진다. 이렇게 초안산에는 죽어서도 임금을 바라보는 이들의 충절과 살아생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비석골근린공원 초



입에는 아기소망길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초안산의 자연을 벗어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배우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여행길이 '아기소망길'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석골근린공원의 석물전시장을 둘러보며

아기소망길 출구로 나와 비석골근린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매년 태강릉·초안산 <궁중 문화제>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에는 <초안산 문화제>가 노원문화재단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근린공원에 있는 석물전시장에는 초안산 분묘군 인근과 노원구 관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석물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다. 망주석과 문인석, 동자상이 구역을 나누어 잘 배치되어 있었다. 한곳에 모아 놓으니 보기는 좋지만, 원래 있던 위치에 놓고 주변을 좀 더 잘 꾸몄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석골근린공원을 나오면 월계고등학교 골목이 있고, 조금 더 걸으면 월계2동 주민센터가 보인다. 그럼 이제 초안산과 인사를 할 시간이다.

역사와 생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초안산

처음 찾아온 초안산은 '역사'와 '생태'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에는 서울에서 최초로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이 초안산에서 관찰되었고, 2012년에는 두꺼비, 도롱뇽, 산개구리 등 3종 1,500마리를 방사하기도 했다. 양서류와 파충류의 서식처인 습지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초안산은 가족과 함께 운동 삼아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의 장소로도 좋은 곳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행을 겸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 초안산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초안산

A.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과 창동 일대

‘Imagine’ 노원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칼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상상을 바꿨다. 마스크 없이 밖을 다니는 건 말 그대로 상상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열을 재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사람이 북적이고 활기가 느껴지는 축제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노원문화재단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글 김승국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노원문화재단

재단이 꿈꾸는 새로운 Imagine

모든 노원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화도시 노원’을 상상해 본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음식점에서도, 거리를 걸으면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늘 아름다운 시들과 그림을 만나고, 아름다운 음악과 춤을 만나는 노원을 상상해 본다. 이러한 일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까?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많다. 뉴노멀은 ‘새롭게 보편화한 사회·문화·경제적 표준’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을 위한 용어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문화계도 뉴노멀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개최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광역문화재단도 코로나19 사태 포럼 등을 통해 각각 관점을 내놨다. 그렇다면 기초문화재단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인한 재단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노원문화재단만 해도 축제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연기됐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때문에 준비했던 버스킹, 돗자리 영화제 등 소규모 공연이 취소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도시 노원 추진방안과 코로나 이후 문화재단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지역문화재단의 활로는 언택트 행사와 지역 커뮤니티

내가 생각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활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온라인 공연이나 VR, AR 등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공연, 전시 등의 활동이다. 공연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가진 매력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공연계도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 재단은 아직 유료 공연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랜선 언택트 콘서트〉를 공개했다. 이 콘서트는 구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연을 듣고 신청곡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공연이나 VR, AR 등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사업을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다.

둘째는 지역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초문화재단은 큰 지역이 아닌 기초단위에서 직접 구민을 만나고 사업을 전개한다. 대규모 만남보다 소규모 만남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도 구민들에게 조금 더 밀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소나기랩, 《코로나 이후 독일의 생활 중심 문화예술교육》). 북독일 지역에만 쓰이는 ‘키이츠Kiez(동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역만의 특별한 지역문화를 일컬을 때 많이 쓰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 키이츠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네벤안(nebenan.de)’이 있다. 네벤안에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올라오고, 그 해결책도 동네에서 찾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동네 예술가들의 공연이나 이벤트, 문화예술 교육 수업 등이 올라온다. 3~5인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즐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당근마켓’처럼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당근마켓은 중고 물품 거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에 주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노원 문화지도’라는 플랫폼을 오픈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이다. 또한, 권역별 문화PD를 선발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Imagine 노원

상상 놀이에 잘 어울리는 노래는 역시 존 레논 John Lennon이 부른 불후의 명곡 ‘Imagine’이다. 담담하고 잔잔하게 전개되는 선율도 좋지만 한 편의 시 같은 노랫말이 더욱 좋다. 늦은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이 곡을 듣고 있노라면, 몽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노래 속 가사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는 시대나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류가 꿈꾸는 이상향일 것이다.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예술이 제한받는 요즘의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화도시 노원’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단소식

2020년 관내 시각예술 분야 전시 지원 사업 공모

예술가들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장

노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관내 시각예술 단체 및 협회,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각예술분야 전시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에게는 창작물 발표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여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모는 9~11월 중 전시 계획이 확정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시 활성화 지원과 전시 계획은 있으나 공간 대관을 하지 못한 단체를 위한 전시 공간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재단에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관내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 제공으로 창작의 연속성과 작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전시 관람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힘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김승국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에 어려움을 겪은 시각예술 단체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서 시행된 공연예술과 이번 시각예술 지원을 통해 관내 예술가들을 위한 재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문화재단, 신규 이사 5명 선임

손인영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등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구성

노원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이사 5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해 노원문화재단 콘텐츠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여 노원문화재단 이사는 현재 활동 중인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됐다. 신규 이사는 박평준(티엘아이가

트센터 관장), 손인영(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안철식(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 이창기(전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한선숙(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 관장) 등 총 5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사진은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아트센터 관장, 문화예술단체 예술감독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문화재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국 이사장은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문화예술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문화예술계 전문가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문화재단이 구민과 예술가 모두에게 더 좋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원 예술인 지원 상담소 ‘노원하랑’ 지속 운영

노원문화재단은 기간 ‘노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접수와 상담에 집중했던 노원 예술인 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을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노원하랑은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신청’, ‘예술인 지원사업 안내’, ‘국고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월부터 5월까지 운영된 1차 노원하랑은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했고, ‘노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2차 노원하랑은 6월부터 8월까지 1,500여 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노원하랑’ 서비스는 매주 월·화요일 사전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노원문화재단 1층 노원하랑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승국 이사장은 “노원하랑의 상담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지원하고 알리는 온라인 플랫폼 문화지도가 구축되었다”며 “문화지도에 등록된 예술인은 내년에 진행되는 재단의 각종 지원사업과 크라우드 펀딩 후원사업에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심으로 내디딘 걸음의 끝이 보이기 시작
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만큼 새로이 경험하는
것도 많은 한 해였다. 직접 갈 수 없기에 온라인을 통해 다
가갔고,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안전한 문화
생활 환경을 구축했다. 노원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문화예
술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 나아간다.

글 김채은



PEOPLE

구민들을 위한 마음

노원문화재단 4인의 이야기



왼쪽부터 윤혜인, 박원준, 김용식, 정경희

누구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루의 반을 노원의 문화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들춰보았다.

글 김채은 사진 Hae Ran

Interview

정책기획부 **김용식**, 문화진흥팀 **박한준**,
축제사업부 **윤혜인**, 공연전시부 **정경희**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경희(이하 '정') 안녕하세요. 공연전시부 정경희입니다. 지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과 다양한 문화 강좌, 그리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기획 공연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윤혜인(이하 '윤') 축제사업부 윤혜인입니다. 노원문화재단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막내예요(웃음).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와 제야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노원달빛산책〉 지원 업무를 맡고 있어요.

박한준(이하 '박') 문화진흥팀 박한준입니다. 저는 지역 내 문화진흥을 위한 생활문화 분야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주관하고 있는 '거버넌스25'가 있죠. 그 외에 자동차극장, 생활예술 동아리 공연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김용식(이하 '김') 정책기획부 김용식입니다. 재단의 홍보 업무를 맡고 있어요. 노원문화재단 공식 SNS, 웹진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죠.

노원문화재단에 입사하기 전에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나요?

박 네, 옛날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죠. 그곳에서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노원문화재단이 새롭게 설립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입사하게 되었죠.

윤 저는 원래 영화제에서 일했어요. 전주, 부산, 부천 등 다양한 곳에서 영화제 단기 스태프로 일하며 문화예술 관련 경험을 쌓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노원문화재단의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새로운 해였어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정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 같아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잖아요. 올해 초에는 기존에 없던 '마스크 필수 착용' 문구를 새로 만들어서 재단 공연을 찾는 관객과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수강생분들에게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내 문구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습관화된 것 같아요.

윤 저에겐 특히 변화가 많은 해였어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고, 또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박 코로나19로 불규칙한 행사가 많아졌어요. 예전부터 기획하던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변화도 많았고요.



행사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윤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계속해서 취소되니까 힘들었어요. 준비한 것을 못 보여 드리니까 아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죠.

박 공연을 기다렸던 분들도 저희만큼 실망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공연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죄송하고, 고민이 있었어요.

정 맞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올해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공연 취소와 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연을 기획하는 것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떨림의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은 뭐예요?

윤 제가 지원하고 담당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걸 지켜본 모든 순간이 기쁘고 보람찼어요. 입사 후 처음으로 준비한 것들이 었거든요.

김 웹진 《노원아띠》가 한 호, 한 호 나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또 웹진을 보고 정성스레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요.

최근에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고, 노원 문화지도 서비스도 새로 만들어졌다고요.

김 개편 전 홈페이지는 공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노원주민분들이 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죠. 새로운 홈페이지는 공연, 축제, 전시가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변경했어요.

윤 노원 문화지도는 들어가면 노원구 예술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술가분들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어요. 문화지도는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그 외에도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제작했죠. 그중 '노원문화배달'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정 노원문화배달은 온라인을 통해 문화예술을 배달해 주는 콘텐츠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공연과 미술, 문학을 방구석 1열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죠. 또 좋았던 공연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김 한동안 연주할 기회를 잃었던 지역 예술가분들도 오랜만에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지역 예술가분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겠네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박 지금까지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아무래도 노원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공연이나 행사를 찾아볼 때,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보다는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물론 SNS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소개해 두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노원구 곳곳에 공공 게시대와 문화재단 전용 2mX2m 게시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팀이네요(웃음). 마지막으로 내년의 목표를 들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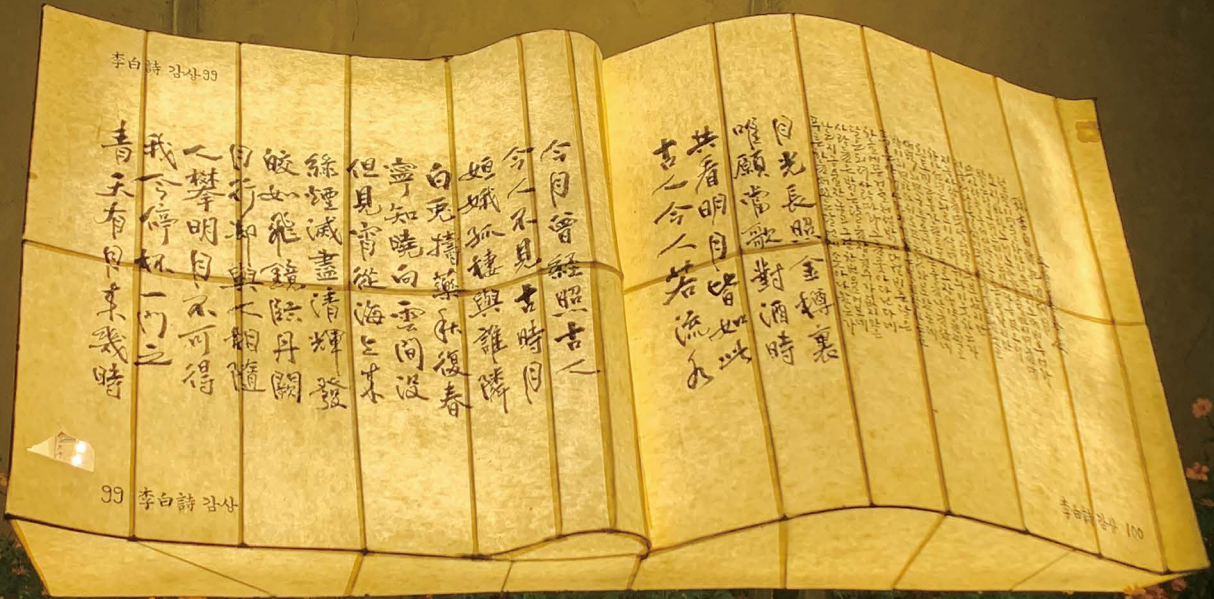
박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몰랐던 노원구의 문화 공간을 알게 되었죠. 내년에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노원이라는 지역에 세부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윤 축제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년에는 부디 상황이 좋아져서 공연을 기획하는 담당자로서든, 관객으로서든,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정 생각해 보면 올해는 여유를 즐길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신없이 지내며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유를 갖고 저를 위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김 올해는 여러모로 정신없는 한 해였어요. 내년에는 저 자신을 더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휴학 중이거든요. 2021년엔 꼭 졸업하고 싶어요.

당현천 꽃길에 내려앉은 달빛



노원달빛산책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된 요즘, 당현천에서 진행된 <노원달빛산책>에 다녀왔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당현천 꽃길에 설치한 등불처럼 환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장을 소개한다.

글·사진 장영범 노원아띠 기자단



당현천 산책

<노원달빛산책>은 노원문화재단이 주최한 축제다. 중계역 인근의 어린이교통공원 옆 당현3교에서부터 노원수학문화관 근처 새싹교까지 당현천 꽃길을 따라 약 2킬로미터 구간이다. 저녁 8시, 어두움이 짙어졌을 때 이번 행사의 시작 지점인 당현3교에서 출발했다. 첫 작품인 ‘초가집과 풍류’를 시작으로 전체 200여 점의 크고 작은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군데군데 종합안내소와 배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행사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었다.

우리에게 달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은 희망을 의미하지 않을까?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삶이지만 달빛을 주제로 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 작품을 보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보름달’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큰 보름달 전시물과 형형색색의 작은 등이 조화롭게 설치된 작품도 있었고, 둥근 보름달 아래 이어진 계단으로 아이를 업은 소녀가 달에 오르려는 듯한 인상적인 작품도 있었다. 보름달을 소재로 한 작품은 우주로 영역이 확대된다. ‘달과 대화하는 우주인’은 큰 달 앞에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작품이다. 손짓하며 달과 무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전 구간을 다녀보니 늦은 밤인데도 아이들과 함께 구경하러 나온 가족이 많았다. 초록, 노랑, 분홍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원색의 전시물이 아이들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속에서 가족애와 형제애가 느껴졌다. 아이들이 “저기 별뿔별이 떨어져요!”라며 뛰어가길래 따라가 보니 성서대학교 건물에서 내려오는 ‘유성우’ 전시물을 볼 수 있었다. 산책길을 걸으면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 중 하나였다. 또, 알록달록 화려한 전시물들을 보던 중,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길래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본 곳에는 ‘우주선 발사시설 디오라마’가 있었다. 발사 카운트와 함께 불꽃을 뿜으며 우주왕복선이 발사되는 모습에 관람객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번 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구민 해설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미리 신청하고 방문해 자세한 해설과 함께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방역에도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곳곳에 안전봉을 든 안내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고, 점등식과 해설 프로그램 등은 거리 두기 차원에서 참가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지만, 따뜻하게 입고 아름다운 전시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1년에도 등축제는 계속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아름다운 등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20 노원달빛산책>

일시 10월 23일(금)~11월 15일(일)

장소 당현천 일원 (당현3교~수학문화관)

별빛같이 아름다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나다

연극 강아지똥

서울시 동북권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인 노원어린이극장이 개관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환상의 예술극장을 추구하는 노원어린이극장의 개관 기념 첫 번째 공연은 연극 〈강아지똥〉이었다.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버림받은 존재인 ‘강아지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글 백은정 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극단 모시는 사람들

거리 두기 좌석제로 안전하게

노원역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인 노원어린이극장은 KT노원지사(노원구 노해로 502) 지하 1층에 있다.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니 캐릭터 조형물이 극장 입구에 포토존으로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 시선을 사로잡는다. 방역 수칙에 따라 체온 체크를 하면 티켓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데, 이 경우에만 극장에 입장이 가능해 안심됐다. 관람석은 ‘거리 두기 좌석제’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

여기 작은 강아지똥이 있습니다

연극 〈강아지똥〉은 베스트셀러인 《몽실 언니》(1984) 외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아동문학가 故 권정생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동화책의 내용을 연극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강아지똥처럼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있을까? 공연은 그림자 연극으로 시작된다. 강아지 한 마리가 볼일이 급했는지 여러 동물 집 앞에서 공공대지만 쫓겨나기만 한다. 이내 장면은 바뀌고, 강아지는 무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다가 한구석에 똥을 둔다. 이 강아지똥이 바로 연극의 주인공이다. 강아지똥은 흙덩이에게 놀림 받고, 지나가는 암탉에게도 놀림을 받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한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 어느덧 따뜻한 봄이 온다. 바람에 여기저기 날아다니던 민들레 흙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강아지똥을 발견하곤 말을 건다. “꽃을 피우기 위해 네가 필요해.” 그 말을 들은 강아지똥은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민들레 씨앗 옆을 지킨다. 강아지똥이 자신을 녹여 민들레꽃을 피

우는 장면은 화려한 조명과 안개 효과로 더 황홀하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드디어 화면이 어두워지고 조명이 한곳만을 비추고 있다. 크고 노란 민들레가 무대 한가운데에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이다. 눈에는 민들레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강아지똥의 사랑과 헌신의 결과를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소중한 존재에 대하여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 현재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한 연극이지만 〈강아지똥〉 이야기는 성인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또한, 중간에 어린아이의 내레이션을 통해 동화 속 내용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무척 신선했다. 더 넓어진 무대,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는 연극을 더욱더 빛내주며 연극 내용을 더욱 잘 어필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연극 관람 후 노원어린이극장에서 비치한 ‘공연 감상하는 내 모습을 완성해 주세요’라는 후기 활동지를 가져와 집에서 열심히 그려보기도 했다. 개관 공연으로 준비된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음악극 〈리틀 뮤지션〉, 연극 〈눈의 여왕〉도 기대해 본다.

노원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공연 〈강아지똥〉

일시 10월 31일(토)~11월 1일(일)

장소 노원어린이극장



마음껏 발광하는 무대

오방신과 발광

드디어 그들이 왔다. 이희문의 <오방신과 발광>이 노원을 찾아 와서 구민들과 함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글 편은심 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강렬한 첫 인상

어느 가을,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의 손을 잡고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았다. 공연 15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거리 두기 좌석제 때문에 한 자리씩 띄어 앉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공연장이 꽉 찬 느낌이었다. 사실, 나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붙은 공연 홍보 포스터를 보기 전에는 ‘이희문’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다. 호기심이 들어 찾아보니 노래 제목이 시선을 끌었고, 음악을 들어보니 ‘동양과 서양의 퓨전 음악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한눈에 띄는 강렬한 형광색이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소리꾼 이희문

그는 경기민요 전승자이면서 전통예술에 파격적인 창작 음악을 더 하는 음악가다. 퓨전 프로젝트 밴드 ‘오방신과’의 이름으로 대중과 만나는데, 민요 듀오 ‘눔눔’과 키보드, 트럼펫, 색소폰, 기타, 베이스, 드럼, 퍼커션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밴드 ‘허송세월’이 함께한다. 눈에 띄는 형광색으로 디자인한 의상과 스타일은 그의 음악과 멋진 화합을 이룬다. 이희문의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와 국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음악을 연상하게 한다. 전통 민요와 재즈 음악이 가미된 밴드와 함께하는 퓨전 음악 콘서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어떤 반응으로 공연에 참여할지 상당히 기대되고 궁금해졌다.

뜨거운 열기와 환호

오프닝에서부터 나의 기대는 환호와 탄성으로 바뀌었다. 허송세월 밴드와 함께 등장한눔눔 듀오의 무대를 시작으로, 오방신과 팀에 새롭게 합류한 제제와 쯔니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이루어진 무대는 코로나19로 한동안 움츠러든 우리를 깨어나게 했다.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흥을 나누는 국민이었음을 말이다. 무대가 계속될수록 열기는 뜨거워졌고, 관객은 마스크를 쓴 채로 손뼉을 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방신과가 내뿜는 발광의 기류에 흥을 실어 환호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노원은 높은 빌딩이 없고, 아파트와 주택, 빌라가 합쳐진 동네인 데다 힐링과 교육 특구라는 명성에 맞게 유해 시설이 없고 녹지 환경이 잘되어 있어, 안정감과 평온함 그리고 조용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까지 점잖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연장에서 구민들이 에너지를 뽐내며는 모습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신나는 무대가 좀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이 공연은 8세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중년, 어르신까지 다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접근이 쉽지 않은 민요인데도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공연을 보면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희문이라는 소리꾼에게 폭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기존 유명곡인 ‘허송세월말어라’, ‘개소리말아라’, ‘나나나나’, ‘건드령’ 등과 더불어 지방 공연을 하며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는 ‘제주나논데’의 무대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나 ‘허송세월말어라’를 부르기 전 그는, “공연할 때 열심히 참여 안 하고, 나중에 앙코르 무대로 나를 여러 번 불러내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열심히 즐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관객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 한마디가 관객이 직접 공연의 주체가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에는 알뜰살뜰 대중가요 멜로디를 모아 앙코르 곡까지 시원하게 하고 공연을 마쳤다. 공연이 끝나 아쉬운 관객들은 마지막 포토타임에 ‘오방신과’의 멤버들과 차례차례 줄을 서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아쉬움을 달랬다. 나는 공연을 찾아온 관객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희문을 알고 있었고, 매 공연을 찾아다니며 음악을 들었다며, 노원에 이희문이 온다는 소리에 한걸음으로 달려왔다는 흥분을 전해 주었다. 왜 공연장이 그렇게 뜨거웠는지 이해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광적인 공연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방신과 발광>
일시 11월 3일(화)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서민의 애환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노원 문워크 ‘104 간직함’



걸으면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높은 언덕. 집마다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 중인 청년들이 보인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104마을. 이주 및 철거가 추진되어 곧 사라지게 될 중계동 104마을 예술창작소 일대에서 지난 가을, 시민들과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억의 날 행사가 개최돼 찾아가 봤다.

글·사진 정소나 노원아띠 기자단

입구 바로 왼쪽, 1층 다목적실에서는 기억을 간직한 공예품 만들기로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라탄 공예(다하리 작업실 작가 ‘정보경’), 프랑스 자수(올리블리 프랑스 자수 작가 ‘허은숙’), 목공예(목공방 모월 작가 ‘이수연’) 체험이 한창이었다. 예술창작소 로비와 계단, 외벽에는 공릉청년 예술회 작품이 전시 중이었고, 영화 상영회에서는 ‘사라져 가는 공간’, ‘공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인연, 유지민, 김현정, 윤가은, 김현정 감독의 영화가 상영됐다. 동시에 104마을 골목에서는 노원구 문화PD의 해설과 함께 골목을 누비는 걷기 행사가 진행됐는데, 나는 라탄 공예와 마을 골목 투어를 직접 체험했다.



라탄 공예 첫 도전

라탄 공예는 얇은 등나무 소재를 이용해 작은 바구니부터 가구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공예다.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고가의 장비는 필요 없이 라탄과 가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물을 묻혀가며 라탄을 위아래 엮어 한 땀 한 땀 작업하다 보니 어느새 오목한 바구니 하나가 완성된다. 이번 수업을 진행한 정보경 작가는 “104마을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두 즐거워하셔서 좋았다”고 말했다. 중계동에서 온 참여자는 “처음 해보는 공예인데 재미있고 신기하다”며 “104마을은 처음 와보는데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골목 속에서 마주한 것

공예 체험이 끝날 무렵 노원 문화PD(이권화, 이진숙, 편은심)와 함께 104마을 골목 걷기 시간을 알리는 안내가 있었다. 중계동 104번지는 1967년 정부가 개발을 이유로 강제 이주를 추진해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다. 강제 이주를 당한 주민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30평 남짓한 천막이 전부, 그것마저도 분필로 선을 그어 네 가구가 살게 했다. 그렇게 해서 한 가구에 8평 남짓으로 시작된 집은, 현재는 세월이 흘러 이사

간 집을 사들여 합치고 남는 땅에 집을 지으며 대개 20평 남짓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골목 곳곳을 해설사와 거닐며 이곳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애환을 들으니 삼거리 식당 문 앞에 비친 내가 30년 전 당시 북적거리던 104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골목 걷기가 끝난 후, 찬찬히 공릉청년예술회의 작품을 감상했다. 공릉청년예술회는 오브제, 설치, 영상, 드로잉,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젊은 작가들로 104마을의 마지막에 영감을 얻어 재개발로 흩어지게 되는 공동체와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역과 공간, 재개발, 건물들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조형 예술로 제시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세욱, 김지민, 김채리, 또찬스, 변수빈, 이주희, 최희원 작가가 참여했다고 한다. 이번 노원 문워크 ‘104 간직함’ 행사는 비록 하루 일정이었으나, 노원구 전역의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들이 지역 시민들과 문화 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시간이었다.

노원 문워크 ‘104 간직함’

일시 11월 6일(금)

장소 104마을 생활문화지원센터&예술창작소



CULTURE

경춘선의 가을과 추억, 재미를 즐기다

경춘선숲길
거리예술 프로젝트

매달 마지막 주말, 경춘선숲길에선 살아 움직이는 예술이 펼쳐진다. 여유를 즐기며 걷던 숲길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는 어느새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곳, '2020 경춘선숲길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다녀왔다.

글·사진 이희순 노원아띠 기자단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단풍이 아름다운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왔다. 경춘선숲길공원(화랑대 철도공원)은 화랑대 폐역 주변을 공원화한 곳으로 현재 역사는 역사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로에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열차가 상설 전시되어 있다. 평상시에도 가족과 연인이 많이 찾는 노원의 명소 중 하나다.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모습을 담은 공연

인상 깊었던 공연 몇 가지를 소개한다. 'The 광대'의 〈당골포차〉는 각박한 이 세상, 현대인에게 위로의 공간이 되어주는 '당골포차'를 주제로 한다. 돈, 연줄, 계급 등 늘 우리를 괴롭히는 골칫거리를 안주 삼고 기예, 재담 등 다양한 전통연희를 곁들인 신나는 뒷담화로 유쾌한 위로를 건넨다. 흥겨운 가락에 몸이 저절로 들썩거리면서도, 내 이야기 같은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또 신체극, 현대무용, 전통연희 예술가들이 모여 우리의 몸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거리예술로 승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봉앤줄의 〈외봉인생〉 또한 감명 깊었는데, 끊임없이 걷고 오르고 떨어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슬픈 소리, 애환이 느껴지는 인생길을 담은 한 편의 공연으로,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이면에 나타나는 우리의 외봉인생을 느낄 수 있었다.

관객에게 선사하는 신선함과 즐거움

크로키키브라더스의 〈크로키키브라더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드로잉 서커스 코미디였다. 멤버 각자 그림을 그리고 이를 합쳐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참 재미있었다.

행복을 배달하는 광대 팀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은 누구나 동심에 젖게 하는 '버블쇼'로 구수한 입담을 섞어 시종일관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엄청난 비눗방울에 관객의 환호성이 대단했다. 퍼니밴드의 〈싱싱싱 콘서트〉는 연주자만 즐기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공연으로, 우리가 듣던 익숙한 음악을 국내 최초 퍼포먼스 브라운 앙상블 그룹의 연주 실력으로 관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해 준 명품 라이브 공연이었다. 극단 나무의 〈벨로시랩터의 탄생〉은 화랑대 철도공원에 등장한 거대 신문지 공룡으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어린이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공룡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풍경을 연출해 주어 무척 신선했다. 공연 중간중간 비가 내렸지만, 나를 포함해 생각보다 많은 관객이 우산을 쓰면서도 거리예술을 즐겼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화랑대역 경춘선숲길에서 주말 일상을 휴식처럼 보낸 시간이었다.

경춘선숲길 거리예술 프로젝트
일시 6, 7, 10월 마지막 주 주말
장소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

CULTURE

사진으로 만나는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

노원 NOW&NEW
공·간·애空·間·愛

우리는 한 장의 사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리운 옛 정취, 보고 싶은 사람과의 이야기, 영험한 힘이 느껴지는 하늘 속 별빛 사진까지. 마음 편히 여행도 이동도 어려운 요즘,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소소하면서도 진중한 울림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준다. 노원문화재단은 이에 아주 소중한 기획특별전을 준비했다. 〈노원 NOW&NEW - 공·간·애空·間·愛〉사진전이 그 주인공이다.

글·사진 조독신 노원아띠 기자단

이번 사진전은 노원구를 주요 활동 무대로 하는 사진작가 4인의 작품전으로 마련되었는데, 주제와 사진 기법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노원구지부의 관록 있는 사진작가들이 참여한 사진전인 만큼 그 내공만으로도 단단히 준비된 전시임을 알게 해주었다. ‘공·간·애’를 주제로 송은숙, 이향순, 편숙희, 허정 작가가 참여했다.



자연, 하늘, 이야기를 사진에 담다

작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풀어냈다. 송은숙 작가는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하늘 속 찬란한 별빛을, 이향순 작가는 ‘삶과 자연’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편숙희 작가는 ‘내 삶 속의 길’이라는 주제로 길과 공간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제안했고, 허정 작가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주제로 사진전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작가가 직접 도슨트로 참여해 관람객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사진에 얹힌 뒷이야기와 사진의 의미를 직접 작가에게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노원문화재단의 세심함이 빛나는 구성이었다. 송은숙 작가는 “별과 은하수를 주요 소재로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다른 사진도 조건과 여건이 잘 맞아야겠지만 별빛을 담아내는 사진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편”이라며 “주변 불빛 하나에도 영향을 받고,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자연환경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장 먼 곳, 가장 높은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가장 적은 곳으로 향해야 하는 사진작가의 삶에 대한 단편들도 도슨트 프로그램 내내 들을 수 있었다.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일련의 과정 속 빛나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그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따뜻함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최고의 사진을 위해

송은숙 작가는 몽골, 단양, 설악산 화암사, 가리왕산 등 은하수와 별빛을 찍기 위해 20킬로그램이 넘는 짐을 지고 등정을 한 기억을 회고하며 사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작가는 “한 번에 찍을 수도 없고 여러 번 등정을 한 끝에 최고의 사진이 나온다”며 “7시간을 등정하기도 하며 힘듦의 연속인 순간도 많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작가의 사진 작품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편 작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소들과 고택 등에 방문하여 사각형의 프레임 속에 담아내는 사진의 신비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던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도 곁들여 설명에 풍성함을 더해주시기도 했다. 이번 주말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출사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좋은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많다. 내가 사는 곳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지금 모습을 담아내는 일만으로도 훌륭한 사진이 될 것이다.

〈노원 NOW&NEW - 공·간·애空·間·愛〉
일시 10월 26일(월)~11월 4일(수)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아트갤러리

향과 빛을 담은 비누의 신세계

시월의공간

시월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단풍길을 걸으며 상계동 마을 한편에 자리한 수제 비누 공방 ‘시월의공간’에 다다랐다. 공방이 자리한 건물에 들어서 는 순간, ‘아, 내가 잘 찾아왔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향기로운 비누 냄새 가 먼저 나를 반겼다. 공방 문을 열자 차분하고 따뜻한 나무색 진열장 위 에 알록달록 아름다운 비누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가 직접 이런 비누 를 만들 수 있을까?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글·사진 이려진 노원아띠 기자단



시월의공간은 찬바람이 불고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계절이자 감성적으로 가장 센티멘털한 시기를 시월이라고 생각해, ‘감성을 담은 공 간’이란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오늘날만큼 온갖 감성과 감각을 총동원해 비누를 만들어 보리라 다짐했다.

나만의 바다 만들기

맑고 투명한 여름 바다와 깊고 신비로운 겨울 바다를 MP(Melt Pour, 녹여 붓기) 방식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선 투명한 비누 베 이스를 ‘각독썰기’하여 핫플레이트에 녹였다. 적당히 단단한 비누 베이스를 네모지게 썰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벌써 힐 링인데?’ 하고 생각했다. 이어서, 녹은 비누 베이스에 황토 가루를 섞어 바다의 모래가 될 부분을 만들었다. 액체 상태인 비누를 틀에 부을 때, 틀을 기울여 자연스럽게 경사진 모랫바닥을 묘사했다. 비 누가 굳어갈 때 즈음 손으로 바닥을 눌러 울퉁불퉁한 느낌을 냈다. 조개 모양 틀에 황토 가루를 살짝 뿌리고, 비누 베이스를 부어 진짜 같은 조개를 만들었다. 조개를 굳어 가는 모래 위에 올리고, 투명한 비누 베이스를 부었다. 층층이 비누를 부을 때마다 에탄올을 뿌리 는데, 이는 표면의 기포를 없애 주고, 비누 층과 층 사이의 접착제 구실을 한다고 한다. 고심해서 고른 파란빛 색소를 비누 베이스에 개고, ‘바다’와 잘 어울리는 레몬과 페퍼민트 향을 첨가했다. 바다 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파란색 색소의 농도를 더하여 층층이 쌓 는 것을 반복했다.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금세 비누가 굳어 완성되었다.

진심이 담긴 비누

틀에서 꺼낸 비누를 보고,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 인가!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도장을 찍으니,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그럴싸했다. 진짜 바다를 조각내어 비누로 만든 것 같다고 하면 오 버일까? 단면마다 조금씩 다른 물결의 모습을 살펴보며, ‘비누 공 예의 매력이 엄청나다’고 연신 중얼거렸다. 공방 대표님은 구상한 이미지가 생각한 대로 비누에 표현되었을 때의 희열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다정한 말투 사이사이 비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느껴졌 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비누를 만들며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만들어진 비누를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아까워서 못 쓸 정도로 아름다운 비 누지만, 천연 비누인 만큼 유통기한은 6개월로 다소 짧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비누, 삼푸, 입욕제 등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아낄 수 있어 환경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중하고 싶을 때, 손으로 무언가 만들고 싶을 때, 삶에 작은 힐링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한 향과 빛깔을 골라 비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혹은 차분히 혼자 언제든 ‘시월의공간’의 문을 두드리길 추천한다.



시월의공간

- A.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18길 29, 상가동 101호
- H. blog.naver.com/shinhy63
[instagram.com/siwol_space](https://www.instagram.com/siwol_space)
- T. 010 4942 4547
- O. 평일 09:00~23:00(방문 전 문의 및 예약 필수)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

브루마스터Brew Master가 뭐지? ‘맥알못’(맥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내게는 생소한 직업이었다. 브루마스터는 맥주 제조의 전 공정을 관리하는 양조기술자를 일컫는다. 2002년 2월 주세법이 개정되어 판매 업소에서도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하우스 맥주 전문점이 점차 생겨났다. 공릉동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이하 ‘바네하임’)은 국내 1호 여성 브루마스터 김정하 대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 만든 양조장과 레스토랑이 같이 있는 ‘브루펍’이다.

글·사진 김윤지 노원아띠 기자단



라거는 뭐고, 에일은 뭐야?

수제 맥주 열풍이 불면서 ‘에일’이라는 걸 들어봤다. 라거 맥주는 기계로 만들어서 저렴하고, 에일 맥주는 수제라서 비싼 건가? 혼자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라거와 에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라거는 발효 중 아래로 가라앉은 효모(이스트)를 이용해 대형 생산 설비에서 9~15도의 저온 발효 방식으로 만든 맥주다. 색이 맑고 맛이 깔끔하고 청량하다. 반면, 에일은 위에 떠오른 효모를 18~25도의 고온 발효 방식으로 만든 맥주다. 전통 맥주 제조법으로 소규모 설비에서도 생산할 수 있으며, 제조 공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낸다. 그래서 수제 맥주와 에일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 듯하다. 바네하임에서는 김정하 대표가 독자적인 연구 개발로 만든, 차별된 맛과 향이 있는 에일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수제 맥주의 맛

이곳의 대표 맥주는 ‘프레아’, ‘노트’, ‘란드’다. 세 단어 모두 고대 게르만어로 각각 군주, 밤, 대지를 뜻한다. 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샘플러를 주문했다. ‘프레아’는 군주라는 이름과 달리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맛이다. 에일인데 라거 느낌이 나,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맥주라고 한다. 목구멍을 따갑게 때리는 탄산이 아니라, 입안에 약한 전기가 찌르르 흐르듯 목 넘김이 부드럽다. ‘노트’는 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흑맥주다. 비교적 탄산이 적고 구수하며 약간 씹싸름한 보리 맛이 났다. 잘 음미해 보면 커피나 카카오의 맛도 느낄 수 있다. ‘란드’는 끝맛이 씹싸름하다. 프레아와 노트보

다 도수가 약간 더 높고 쓴맛이 강한 무거운 맥주였다. 그 외 쌀로 만든 ‘도담도담’, 과일 맛 삼페인 같은 ‘다복이’, 향긋한 ‘쥬시흡밥 IPA’를 마셨다. 이곳에는 술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마실 먹을 수 있는 맥주가 많다. 메뉴 설명을 읽어 보거나, 직원에게 물어 보면 자기에게 맞는 맥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술만큼 중요한 안주

‘이건 뭐지?’ 처음 보는 기본 안주였다. 보리를 튀긴 후 설탕을 입혔단다. 몇 개 집어 먹어보니, 겹질이 두꺼운 강낭이를 먹은 듯했다. 겹질 때문에 오래 씹어야 했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독특한 매력이었다. 그리고 바네하임의 대표 안주 소시지에는 독일식 양배추 김치인 ‘사우어크라우트’와 부드러운 ‘으깬 감자’가 같이 나왔다. 다른 테이블을 둘러보니 파스타나 피자, 볶음 우동 같은 식사류에 맥주를 곁들여 먹고 있었다. 김정하 대표가 요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맥주와 잘 어울릴 메뉴 개발에도 공을 들였단다. 그래서인지 흔한 맥줏집 튀김 안주보다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볼 법한 안주가 많았다.

모두가 힘겨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연말, 가까운 이웃과 우리 동네 수제 맥줏집에서 2020년을 도란도란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지금이 곧 나올 맥주처럼 맛있게 숙성되는 인생의 한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일의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자.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

A.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32길 54 고려BD 1, 2층

H. [instagram.com/vaneheimbrewery](https://www.instagram.com/vaneheimbrewery)

T. 02 948 8003

O. 매일 15:00~23:00



COLUMN

문화예술이 함께 날아오른다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칼럼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해다. 2020년 노원문화재단은 아쉽게 코로나19로 준비했던 꿈을 모두 펼쳐보진 못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충분하다. 이 교훈을 발판 삼아 2021년의 노원문화재단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글 김승국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스크’와 ‘거리 두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 됐고, 공연장은 거리 두기 좌석제를 시행해 언제나 꽉 차던 객석이 반만 채워진다. 2020년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해다.

코로나19에 맞선 한 해

노원문화재단은 구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매일매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해 배달하는 ‘노원문화배달’이었다. 노원구민에게 뺏아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예술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주는 기획이었다.

둘째는 예술인 지원책이다.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예술인을 돕는 ‘노원 예술인 지원 상담소: 노원하랑’과 ‘노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장 앞길이 막막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셋째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안전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랜선 콘서트’와 ‘온라인 전시’를 기획했다. 자동차 극장은 빠르게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랜선 콘서트도 코로나19 만나지 못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공연장에서 철저한 거리 두기 실시, 방역 등을 통해 공연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노원달빛산책〉은 안전한 축제를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다. ‘거리 두기를 축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거리 두기를 적용한 관람형 축제가 탄생했다. 밝게 빛나는 등을 2미터 간격으로 배치하고, 구민 해설 같은 부대 프로그램도 소규모 인원으로만 운영했다. 다행히 축제는 차질 없이 운영되었고, 안전한 축제의 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함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는 코로나19에 익숙해졌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 서려고 한다. 우선 비대면 온라인 공연, 전시, 교육 등을 활성화한 다. AR이나 VR 활용 사업이 추가되고, 대면으로만 만나던 공연을

온라인에서도 짧게나마 만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에 더욱 힘을 주고자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사업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에 선정돼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술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IT와 융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둘째는,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예술인 지원이다. 노원문화배달이 지역 예술인의 공연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준 것처럼 지역 콘텐츠 개발과 지역 예술인 지원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시각 예술인에게 보람과 함께 경제적 도움을, 구민에게 눈의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한다. 축제는 안전하게 진행할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할 계획이다. 〈노원달빛산책〉은 관람형 축제였지만, 〈노원탈축제〉, 〈불암산 철쭉제〉 등 주요 축제들은 형태가 다르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치거나 관람하는 형태의 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춘천마임축제〉 같은 분산형 축제나, 타 재단들의 온라인 축제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동아리 등을 비롯해 작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 재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N개의 서울’, ‘거버넌스 25’ 모두 작은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지역의 예술이 자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로 지역에 관심이 생긴 지금이 오히려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적기일지도 모른다.

함께 날아오르다

‘하랑’은 ‘함께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 상담소인 ‘노원하랑’의 뜻은 ‘노원 구민, 예술인 모두 함께 날아오르다’다. 2020년이 우리 모두 도움닫기를 하는 시기였다면, 2021년에는 구민과 예술인 모두 날아오르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재 단 소식



IT와 예술교육을 융합하다

노원문화재단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선정

노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기술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융합된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8,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IT 뮤직카타와 협업하여 '미디어 상상 예술여행'이라는 주제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노원구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기수당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해 총 다섯 기수로 운영한다. 수업은 인터랙티브 IT악기 센서기술 탐구, 키넥트아트(로봇) 리듬 만들기,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네트워크 조형 기술 시연, 영상 맵핑 시연, 마지막으로 탐구한 기술로 가지고 직접 연출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하철역에서 봄을 먼저 만나다

태릉입구역 '노원 서브웨이 갤러리' 연장

노원문화재단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태릉입구역 환승 통로 및 대합실 복도에서 구민들을 위한 힐링 전시 '노원 서브웨이 갤러리' 전시를 연장 운영했다. 더 많은 구민에게 수준 높고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1차 전시 <고흐와 친구들: 일상 속에 만나는 인상주의>에 이어, 2차 <르누아르와 친구들: 색채의 마술사>에서는 화려했고 따뜻한 화가 르누아르 등 4명의 인상주의 작가 작품 30점을 선보였다.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들', '그네' 등의 명화를 특수 제작된 레플리카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었으며, 생생한 붓 터치와 깊이 있는 색감을 느낄 수 있었다.

NEWS

노원의 문화 소식이 한곳에!

노원 문화지도

노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초청하고 싶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까?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지난 8월 공개됐다.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원 문화지도'다.

글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개편된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노원 문화지도'다. 노원 문화지도는 노원의 예술 단체, 문화 공간 등을 권역별 지도를 통해 보여준다.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포트폴리오는 물론, 생활예술단체까지 알 수 있다. 또 예술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문화계 소식', '문화행사안내' 게시판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원 문화지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등록'을 해야 한다. 예술인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면 그대로 문화지도에 공개된다. 이 정보는 노원구 관내 예술인과 예술인, 그리고 예술인과 구

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예술인이 정보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을 홍보할 수도 있다. 예술인 등록은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생활예술단체 모두 가능하다. 한편 예술가를 섭외하거나, 관내 문화예술 공간들이 궁금한 구민들은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등의 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과 SNS를 통해 예술인과 직접 소통도 가능하다.

노원 문화지도

H. nowonarts.kr/html/openspace/culturemap.php

NOWON ART MAGAZINE

노원아띠

2020 창간호

발행처 (재)노원문화재단

발행인 김승국

기획·편집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주)어라운드

편집·디자인·인쇄 (주)어라운드

표지 디자인 소근

홈페이지 nowonarts.kr

주소 01736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1

전화 02 2289 3400

팩스 02 935 4659

노원아띠 기자단 김윤지, 백은정, 이려진, 이희순, 장영범, 정소나, 조득신, 편은심

새로운 문 6월

Topic	
002	Door
People	
003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006	연주하듯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듯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송영민
Culture	
008	매일매일 마음 충전, 문화예술 힐링 3종 세트 노원문화배달 서비스
010	덕분에 힘이 납니다! 코로나 극복 응원 드로잉 챌린지 ‘힘내라! 액츄얼리’

Space	
012	숲길로 조성된 철길을 걸어보자 경춘선숲길 화랑대 역사관
014	대학교에 등록문화재가 있다고?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나는 등록문화재 근대 건축물
016	흙으로 빚고, 손으로 만드는 노원구 도예공방 체험기

숨쉬는 축제 9월

Topic	
020	Festival
People	
021	잠깐 지구에 놀러 온 외계인처럼 소리꾼 이희문
Culture	
024	최대의 자연 습지, 사람이 자연 되는 우포늪 김기춘 우포늪생태사진전
026	노원문화재단 신진작가展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
028	시끄러운 현대의 삶 속에서 휴식을 즐기다 김희라 초대전: 숨쉬는 것들의 순간

Space	
030	매듭으로 인연을 엮다 라임 알구스의작은공방
032	부모를 향한 효심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Column	
034	축제가 가져야 할 키워드 대동, 동락, 상생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칼럼

News	
035	2020년 9월 재단소식

변화의 시작 10월

Topic	
036	New Normal
People	
037	문화예술을 이끄는 노원구 문화PD를 만나다
Culture	
040	다시 일상 속 행복을, 함께 위로받는 랜선 콘서트 비켜라 코로나 힘내라! 대한민국
044	노원아띠 기자단이 소개하는 집에서 하는 문화생활 집콕 문화 생활
048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리얼 페이크 뉴스

Space	
050	나무 속에 마음을 담아 우크반
052	역사체험, 생태체험을 함께 초안산 석물전시장

Column	
054	‘Imagine’노원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칼럼

News	
055	2020년 10월 재단소식

나아갈 방향 12월

Topic	
056	Next Step
People	
057	구민들을 위한 마음 노원문화재단 4인의 이야기
Culture	
060	당현천 꽃길에 내려앉은 달빛 노원달빛산책
062	별빛같이 아름다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나다 연극 강아지똥
064	마음껏 발광하는 무대 오방신과 발광
066	서민의 애환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노원 문워크 ‘104 간직함圖’
068	경춘선의 가을과 추억, 재미를 즐기다 경춘선숲길 거리예술 프로젝트
070	사진으로 만나는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 노원 NOW&NEW - 공·간·애

Space	
072	향과 빛을 담은 비누의 신세계 시월의공간
074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

Column	
076	문화예술이 함께 날아오르다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칼럼

News	
078	2020년 12월 재단소식